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 형태 NE의 메커니즘 연구

- 정신역학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Étude sur le mécanisme de la forme *NE* en français dans la perspective psychomécanique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이 채 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어 형태 NE가 지니는 다양한 용법들을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용법들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존의 문법 연구들을 참고하여 프랑스어 NE의 용법을 부정 부사 ne와 허사 ne로 분류하고, 각각의 용법을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기존에 프랑스어 NE의 복잡한 쓰임을 체계화하고자 했던 Damourette & Pichon(1930)과 Muller(1991)의 연구를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서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주요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또한, 정신역학론적 관점에서 형태 NE의 메커니즘을 제시한 Moignet(1981)와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 허사 ne를 정신역학 모델로 설명하고자 한 Martin(1984)의 연구를 소개하는 동시에 각각의 한계를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NE의 용법들을 '랑그(langue)'와 '담화(discours)'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형태 NE가 지니는 '부정(négation)'의 의미작용이 '잠재세계(monde potentiel)'와 '실제세계(monde réel)'로 구분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monde possible)'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NE가 '랑그' 차원에서 지니는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로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을 제시했다. 또한, 이 '잠재의미'가 '담화' 차원에서는 각각 '잠재적 부정'과 '실제적 부정'의 '실현의미

(signifié d'effet)'로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적 부정'의 '실현의미'의 경우, NE가 어떤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되는지에 따라 각각 '배제적 부정'과 '상관적 부정', '불완전 부정', '완전 부정'으로 구분되는 네 개의 서로 다른 하위 의미를 지님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잠재적 부정'에서부터 '완전 부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형태 NE가 지니는 다양한 부정의 의미들을 정신역학론의 '의미차감(subduction)' 개념을 통해 정리했다.

주요어 : 형태 NE, 정신역학론, 정신체계, 잠재의미, 실현의미,
잠재적 부정, 실제적 부정, 내적 의미차감

학 번 : 2017-28812

목 차

1. 서론 ····· 1

2. 선행연구 ····· 5
2.1. 연구 배경 ····· 5
2.2. NE의 용법 ····· 14
2.2.1. 부정 부사 ne ····· 14
2.2.1.1. 결합적 용법 ····· 14
2.2.1.2. 독립적 용법 ····· 20
2.2.2. 허사 ne ····· 26
2.2.2.1.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 28
2.2.2.2.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 32
2.2.2.3. 상황 종속절 ····· 34
2.2.2.4.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 ····· 36
2.3. 기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40

3. 이론적 도구 ····· 46
3.1. Guillaume의 정신역학론 ····· 46
3.1.1. 랑그와 담화: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 46
3.1.2. 근원적 이원장력 ····· 48
3.1.3. 의미차감 ····· 53
3.2. Martin의 논리의미론 ····· 57
3.2.1. 믿음영역 ····· 57
3.2.2. 가능세계 ····· 61

4. 형태 NE의 정신체계 ····· 63
4.1. NE의 부정화 운동 ····· 63
4.1.1. Moignet(1981)의 분석 ····· 63
4.1.2. Martin(1984)의 분석 ····· 70
4.2. NE의 잠재의미 ····· 76
4.2.1. NE의 메커니즘 ····· 76
4.2.2.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 80
4.2.3.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 83
4.3. NE의 실현의미 ····· 86
4.3.1. 잠재적 부정 ····· 86
4.3.1.1.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 87
4.3.1.2.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 88
4.3.1.3. 상황 종속절 ····· 89
4.3.1.4. 이중 부정 구문 ····· 91
4.3.2. 실제적 부정 ····· 95
4.3.2.1. 배제적 부정 ····· 95
4.3.2.2. 상관적 부정 ····· 97
4.3.2.3. 불완전 부정 ····· 100
4.3.2.4. 완전 부정 ····· 102
4.3.3. NE의 내적 의미차감 ····· 104

5. 결론 ····· 107

참고문헌 ····· 110
Résumé ····· 114

표 목 차

[표 1] 부정 단항 연산자의 진리표 ····· 6
[표 2] 프랑스어 표준 부정소의 통시적 변화 ····· 13
[표 3]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 ····· 28
[표 4] 프랑스어 동사의 외적 의미차감 작용 ····· 53
[표 5] 허사 ne에 대한 Martin(1984)의 가설 ····· 72
[표 6] 형태 NE에 대한 Martin(1984)의 가설 ····· 75
[표 7] NE의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 81
[표 8] NE의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 84
[표 9] NE의 잠재세계/실제세계에서의 부정 ····· 85
[표 10] NE의 잠재적 부정 ····· 94

그 림 목 차

[그림 1] 언어활동의 정신체계 ····· 47
[그림 2]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 ····· 49
[그림 3] 프랑스어 관사 체계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 ····· 50
[그림 4] 동사 avoir의 내적 의미차감 ····· 56
[그림 5] Moignet(1981)의 NE의 부정화 운동 ····· 64
[그림 6] ne ~ que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 ····· 65
[그림 7] Moignet(1981)의 NE의 내적 의미차감 ····· 66
[그림 8] ne ~ pas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 ····· 67
[그림 9] Martin(1984)의 NE의 부정화 운동 ····· 73
[그림 10]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부정화 운동 ····· 78
[그림 11] NE의 정신체계 ····· 79
[그림 12]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NEp의 포착 ····· 80
[그림 13]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NEr의 포착 ····· 83
[그림 14] 배제적 부정 NEr_1의 포착 ····· 96
[그림 15] 상관적 부정 NEr_2의 포착 ····· 99
[그림 16] 불완전 부정 NEr_3의 포착 ····· 101
[그림 17] 완전 부정 NEr_4의 포착 ····· 102
[그림 18]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내적 의미차감 Ⅰ ····· 105
[그림 19]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내적 의미차감 Ⅱ ····· 106

1. 서론

프랑스어 형태 NE의 용법은 크게 부정 부사(adverbe négatif)와 허사(explétif)로 구분된다. 이때 부정 부사 ne는 NE가 문장에서 다른 부정 요소와 결합하거나 또는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허사 ne는 흔히 '허사 ne 구문'이라고 불리는 특정 구문에 한하여 NE가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통 문법에서는 NE의 두 가지 용법 가운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부사 ne의 용법을 표준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허사 ne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문장에 불필요한 요소가 단순히 남용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프랑스어 문법 체계에서 허사 ne의 용법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의 의미론과 화용론에서는 허사 ne가 비록 명시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발화 맥락 속에서 부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뉘앙스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언어학에서는 형태 NE의 복잡한 쓰임을 일관성 있게 설명함으로써 그 문법을 하나의 체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NE를 불일치소(discordantiel)라고 명명하고 NE와 함께 쓰여 부정의 의미작용을 완성시키는 jamais, personne, rien 등의 요소를 배제소(forclusif)라고 명명한 Damourette & Pichon(1930)과 형태통사론적인 관점에서 NE가 지니는 여러 용법들을 부정 연합(association négative)과 역부정 연합(association négative inverse)의 작용으로 설명한 Muller(1991)를 들 수 있다. 또한, Moignet(1981)는 G. Guillaume의 정신역학론(psychomécanique)의 관점에서, NE가 허사 ne로서 최소한의 부정의 뉘

앙스를 나타내는 용법에서부터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용법에 이르기까지 다의적 성질을 띠는 현상을 의미차감(subdu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Martin(1984)은 Damourette & Pichon(1930)의 한계를 논리의미론(logicosémantique)의 가능세계(monde possible) 개념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이를 정신역학론의 틀로 확장시킴으로써 NE의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발전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Moignet(1981)와 Martin(1984)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틀 안에서 프랑스어 형태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NE의 두 가지 용법, 즉 부정 부사 ne의 용법과 허사 ne의 용법이 각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나타내지 않는 경우로 완전한 대립을 이루는 현상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랑스어에서 NE라는 하나의 동일한 기호가 담화(discours)의 차원에서 부정 부사 ne와 허사 ne라는 두 개의 상호모순적인 용법을 지니는 것은 그 기저인 랑그(langue)의 차원에서 부정(négation)의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가 '잠재세계에서의 부정'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으로 구분되는 메커니즘이 자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할 것이다.

첫째, NE의 근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 문법에서는 형태 NE를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 요소로 간주해 왔으며, 따라서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허사 ne의 용법은 일종의 언어적 오류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artin(1984)의 논리의미론적 가설에 근거하여, NE의 부정의 의미작용이 잠재세계(monde potentiel)와 실제세계(monde réel)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NE의 근원적 의미로서 그 잠재의미를 '잠재세계에서의 부정'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전통적으로 흔히 의미론적인 모순으로 제기되어 온 허사 ne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통 문법에서는 허사 ne가 명제의 진릿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문장에서 생략 가능한 요소로 간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사 ne는 프랑스어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꾸준히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가 랑그 차원에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잠재의미를 지닐 때 담화 차원에 이르러서는 허사 ne로 발현됨으로써 '잠재적 부정'의 실현의미(signifié d'effet)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허사 ne는 주어진 명제를 실제세계가 아닌 잠재세계에서 부정하는 의미작용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허사 ne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셋째, NE가 pas, que, plus, jamais 등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작용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띠는가? 프랑스어에서는 NE가 부정 부사 ne로 쓰일 때, pas, que, plus, jamais 등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ne ~ pas/que/plus/jamais 등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표준적이다. 그런데 이때 NE가 어떤 요소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문장에서 표현되는 부정의 의미는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학론의 의미차감 개념에 근거하여, 프랑스어 NE는 명제를 잠재세계에서 부정하는 허사 ne의 용법에서부터 실제세계에서 완전한 정도로 부정하는 ne ~ pas/jamais 등의 용법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다의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문법서들을 참고하여 NE의 용법을 부정 부사 ne의 용법과 허사 ne의 용법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프랑스어 NE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서 Damourette & Pichon(1930)과 Muller(1991)의 연구를 제시하고 각각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할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할 Guillaume의 정신역학론과 Martin의 논리의미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신역학론에서는 '랑그'와 '담화',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 그리고 '의미차감'의 개념을 살펴보고, 논리의미론에서는 '믿음영역(univers de croyance)'과 '가능세계'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NE의 메커니즘에 대한 Moignet(1981)의 정신역학론적 연구와 Martin(1984)의 논리의미론적 연구에 근거하여, NE의 용법들을 각각 랑그와 담화의 차원에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NE의 정신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NE가 랑그 차원에서 지닐 수 있는 잠재의미로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으로 구분된 부정의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이러한 잠재의미가 담화 차원에 이르러서는 각각 '잠재적 부정'과 '실제적 부정'의 실현의미로 발현됨을 보일 것이다. 특히 '실제적 부정'의 경우, NE가 결합하는 요소에 따라 그 의미가 '배제적 부정'과 '상관적 부정', '불완전 부정', '완전 부정'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NE가 허사 ne의 '잠재적 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부정 부사 ne의 '완전 부정'에 이르기까지 내적 의미차감 작용을 겪음을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어 형태 NE의 메커니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기존 분석의 한계를 논의하고,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관점에서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

2.1. 연구 배경

부정(négation)은 인간의 언어가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들 중 하나로,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이다. 언어에 따라 부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문법 체계는 다르지만, 결국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를 갖지 않는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Forest, 1993:59-64).[1] 사실, 부정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Aristoteles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논리학,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Aristoteles는 처음으로 '긍정(kataphasis)'과 '부정(apophasis)'의 대립을 가리켜 '모순(antiphasis)'의 대립이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긍정의 사태(진술)와 부정의 사태(진술)는 "항상 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인" 모순의 관계를 맺는다(Aristoteles, 2008:70-78). Aristoteles(2008:147)는 이러한 개념적 차원의 논의를 명제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단일한 명제는 "어떤 것(주어)에 대하여 어떤 것(술어)을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긍정문 또는 부정문이 된다. 이때 긍정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동일한 사태에 대한 진술로서 긍정문과 부정문은 동시에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

---

1)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원주민의 언어인 윈투어(wintu)에서는 통사적으로 부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윈투어에서는 어떤 사실을 직접 부정하는 대신 그 반대의 사실을 긍정함으로써 부정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Elle **ne** se réveilla **pas**)"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더) 오래 잤다(Elle dormit (plus) longtemps)"고 말하는 것이 문체적으로 더욱 선호된다(Forest, 1993:60).

전통 논리학에서는 명제를 “어떤 것을 단언하기 위해 발화되는 진술문이 표현하는 바”[2]로 정의하면서, 부정을 ‘명제의 진릿값을 뒤집는 단항 연산자(opérateur unaire)[3]’로 규정한다. 부정의 단항 연산자는 명제 p에 대하여 부정 명제 ~p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이때 p가 참이라면 ~p는 거짓, 반대로 p가 거짓이라면 ~p는 참이 된다. 부정의 연산을 진리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Lyons, 1978:119).

Négation	
p	~ p
V	F
F	V

[표 1] 부정 단항 연산자의 진리표[4]

그러나 명제의 진릿값을 이렇게 참과 거짓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전통을 자연 언어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자연 언어는 다양한 언어적 또는 언어외적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해, 논

---

2) “(…) une proposition est ce qu’exprime une phrase déclarative lorsque cette phrase est énoncée pour faire une assertion.”(Lyons, 1978:118)

3) 논리학에서는 수학의 ‘연산(opération)’ 개념을 차용하여 명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다. 즉, 하나의 명제에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 사이에 붙어 해당 명제(들)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연산을 행하는 요소를 ‘연산자(opérateur)’라고 부르며, 이때 각 연산자의 연산에 몇 개의 ‘피연산자(opérande)’가 작용하는지에 따라 ‘단항/이항/삼항 연산자’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그리고(et)’, ‘그러나(mais)’ 등으로 표현되는 ‘연언(連言, conjonction)’이나 ‘또는(ou)’으로 표현되는 ‘선언(選言, disjonction)’이 두 개의 명제, 즉 두 개의 피연산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항 연산자라면, 부정 연산자는 단 하나의 명제 p, 즉 단 하나의 피연산자에 작용하므로 그 속성을 ‘단항적’이라고 한다.

4) V는 참(vrai)의 진릿값을, F는 거짓(faux)의 진릿값을 나타낸다. 순수 논리학에서는 이 두 진릿값을 각각 숫자 1과 0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p	~ p
1	0
0	1

리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규칙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에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양상 논리학(logique modale)과 다치논리학(logique plurivalente)이 등장했다. 먼저, 양상 논리학이란 기존의 논리 체계에 가능성(possiblité)이나 필연성(nécessité)과 같은 양태의 개념을 도입시킨 논리학을 말한다.[5] 다음으로, 다치 논리학의 경우, '명제 p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라는 배중률을 거부하고 참도 거짓도 아닌 또 다른 진릿값의 존재를 주장한다(Blanché, 1968:81-83).[6]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언어학에서는 여전히 전통 논리학의 관점에 따라 부정의 개념을 '명제의 진릿값을 뒤집는 의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긍정문과 부정문을 쉽게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 어떤 언어에서 문장을 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표준 부정(négation standard)'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표준 부정'이란 가능한 한 최소의 명사구와 부사 수식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서술문에서 단일 술어가 부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Miestamo, 2017:406-417). 이러한 표준 부정은 언어에 따라 자립 형태소인 부정소(élément négatif)나 술어의 어두나 어미에 결합하는 의존 형태소인 부정접사(affixe négatif), 술어 자체적으로 부정의 의미작용을 하는 부정 동

---

5) 대표적인 양상논리학 이론으로는 Kripke(1980)의 가능세계 의미론이 있다. 그에 따르면, 명제 p의 진릿값은 특정한 가능세계에서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을 뿐, 그곳을 떠나서는 참도 거짓도 아니게 된다(Blanché, 1968:100). 예를 들어, 문장 "Il est possible que les élèves ne travaillent pas"에 대하여, 명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능세계들 가운데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가능세계에서는 참의 진릿값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닐 뿐, 해당 가능세계가 아닌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단지 '가능(possible)'의 진릿값을 지닌다.

6) 다치논리학에서는 문장 "Je serai à Paris le premier août prochain"에 대하여, 문장의 명제 《나는 이듬해 8월 1일에 파리에 있다》는 문제의 '8월 1일'이 되어서야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획득하며, 그 전에는 참과 거짓의 중간에서 아무런 확정된 진릿값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간주한다(Blanché, 1968:100).

사(verbe négatif)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부정 연산자에 의해 표현된다. 아래의 예문 (1)~(3)은 인도네시아어와 체코어, 퉁가어의 표준 부정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각각 부정소 tidak, 부정 접두사(préfixe) ne, 부정 동사 ikai가 부정 연산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

(1) a. *mereka menolong kami.* (인도네시아어)
they help us.EXCL
'They helped us'
b. *mereka* ***tidak*** *menolong kami.*
they NEG help us.EXCL
'They didn't help us'

(2) a. *vol-al.* (체코어)
call-PST.3SG
'He was calling/called'
b. ***ne****-vol-al.*
NEG-call-PST.3SG
'He was not calling/did not call'

(3) a. *na'e 'alu 'a siale.* (퉁가어)
PST go ABS Siale
'Siale went'

---

7) 예문 (1)~(3)에서 아래첨자로 표시된 메타언어 PST는 '과거 시제(past)'를, SG는 '단수 인칭(singular)'을, NEG는 부정소, 부정 접사, 부정 동사 등의 '부정 연산자(negative)'를, EXCL은 '배타적 인칭(exclusive person)'을, ABS는 '절대격(absolutive case)'을, SBJV는 '접속법(subjunctive mood)'을 의미한다.

b. *na'e* ***'ikai*** *ke* *'alu 'a* *siale.*

PST NEG SBJV go ABS Siale

'Siale did **not** go'

(Miestamo, 2017:409-410, 재인용)

그런데 이때 예문 (1)의 인도네시아어와 같이 부정소가 표준 부정의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 부정소의 구체적인 형태와 문장에서 부정소가 차지하는 위치는 개별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프랑스어의 경우, 아래의 예문 (4)와 같이 ne ~ pas가 대표적인 표준 부정의 부정소로 사용된다.

(4) a. Je suis heureuse.

b. Je **ne** suis **pas** heureuse.

프랑스어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 ne와 pas가 결합된 형태인 ne ~ pas가 부정하고자 하는 술어의 앞과 뒤에 각각 불연속적으로 위치하여 표준 부정의 부정소로 기능한다.[8]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영어의 not, 독일어의 nicht, 스페인어의 no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단일어가 대표적인 부정소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언어학에서는 프랑스어의 부정소 ne ~ pas를 이루는 두 개의 구성요소인 형태 NE와 PAS의 본질과 두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이 자리 잡게 됐다.[9]

---

8) 프랑스어에서 부정법 동사(infinitif)의 부정과 같이 표준 부정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소 ne ~ pas가 'ne pas + 부정법 동사'와 같이 연속적으로 쓰여 부정법 동사의 앞에 함께 위치하기도 한다.

9) 예를 들어, Tesnière(1982:223-224)는 프랑스어의 ne ~ pas를 개별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단어 ne와 pas가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고, ne ~ pas에 의한 부정을 '이중 이완 부정(négation à double détente)'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어에서 NE는 언제나 술어에 종속되어 쓰이므로 '무강세 형태(forme atone)'라고 불린다(*Le Bon Usage*, 이하 *L.B.U.*, 2016:1382, §1012a).[10] 또한, NE는 일반적으로 단어 pas 이외에도 que, plus, jamais 등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구문에 한하여 다른 요소 없이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 복잡한 쓰임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 NE는 역사적으로 비단 프랑스어에서뿐만 아니라 라틴어 계열의 다른 언어나 다른 언어 계열에 속하는 게르만어에서도 술어를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박동열, 2008:221). 즉, 아래의 예문 (5a)와 (5b), (5c)에서 각각 고대 영어와 고대 고지 독일어, 고대 노르웨이어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구로 NE를 사용하고 있다.

(5) a. Ac hi <u>ne</u> cneowan hine. (고대 영어)
'But they did <u>not</u> know him'
b. Ich <u>en</u>weiz.[11] (고대 고지 독일어)
'I do <u>not</u> know'
c. Haraldr <u>ne</u> veit. (고대 노르웨이어)
'Haraldr does <u>not</u> know'
(박동열, 2008:220-221, 재인용)

---

10) 프랑스어의 부정 형태로서 NE와 NON은 라틴어의 유일한 부정 형태 NON에서 파생되었다. NE와는 달리, NON은 아래의 예문 (a)에서와 같이 혼자 쓰여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므로 '강세 형태(forme accentuée)'라고 불린다(*L.B.U.*, 2016:1382, §1012a).
(a) A: Vous voulez du vin ?
B: <u>Non</u>.

11) 중세의 고지 독일어에서 NE는 동사의 앞에 위치하여 접어로 사용될 때에는 EN-으로 변형된다(박동열, 2008:221, 재인용).

이렇게 여러 인도·유럽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NE는 프랑스어의 경우 현대 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지나며 그 지위의 변화를 겪었다. 사실, 고대 프랑스어에는 ne, non, naie, nient, nen, nennil, nu, mar, enne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소가 존재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NE와 NON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됐다(서덕렬, 1996:693). 고대 프랑스어에서 NE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예문 (6)과 같이 다른 추가적인 요소 없이 혼자 쓰여 술어를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6) Dont **n**'ai je ore esté grant piece
o mon seigneur sanz vilonie ? (Le lai de l'ombre, v 698)
(서덕렬, 1996:695, 재인용)

그러다 중세 프랑스어에 들어서면서 NE는 pas, point, mie, goutte 등의 다양한 실사(substantif)와 결합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본래 부정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실사 pas, point, mie, goutte 등은 NE와 함께 사용되면서 기존의 의미를 잃고 부정의 표현적인 가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Brunot & Bruneau, 이하 BB, 1969:474-475).

(7) a. Je **n**'avance (d'un) **pas**.
b. Je **ne** te hais (d'un) **point**.
c. Je **ne** mange (une) **mie**.
d. Je **ne** bois (une) **goutte**.

위의 예문 (7)에서 실사 pas(발자국), point(점), mie(빵 속), goutte(방울)는 각 문장의 술어 'avancer(나아가다)', 'haïr(증오하다)', 'manger(먹다)', 'boire(마시다)'의 사행을 이루는 어휘 요소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무강세 형태 NE와 함께 이 단어들이 또 하나의 부정 요소로서 덧붙여 쓰임으로써 술어의 사행을 더욱 강하게 부정할 수 있게 됐다(*L.B.U.*, 2016:1386, §H1015).[12] 결국 이러한 새로운 형태 ne ~ pas/point/mie/goutte 등은 중세 프랑스어를 기점으로 일반적인 부정 형태로 굳어져 사용됐고, 프랑스어의 부정소는 NE에서 'NE + 부정 요소'로 변화했다.

이후 17세기 고전 프랑스어에서부터는 NE에 덧붙여 쓰이던 단어들 중 pas와 point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NE의 완전한 보조사(adjuvant)[13]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BB, 1969:475). 한편, ne ~ pas와 ne ~ point에 대하여, 17세기 문법학자 Oudin은 전자는 단순 부정 또는 질(qualité)의 부정을, 후자는 양(quantité)의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Vaugelas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욱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다가 현대 프랑스어에 이르러서는 ne ~ point이 일종의 옛날식 표현으로 간주되어 주로 문학작품이나 격식체에서만 쓰이기 시작하면서, ne ~ pas가 프랑스어의 대표적인 표준 부정 표지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현대 프랑스어의 구어 용법에서는 아래의 예문 (8)과 같이 부정소 ne ~ pas에서 NE를 생략하고 보조사 pas만으로 부정이 표현되는 추세이다(Ashby, 1981:674-675).

(8) a. C'est <u>pas</u> juste.
b. Il y a <u>pas</u> de place.

이러한 맥락에서 Ashby(1981)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머지않은 미래의 프랑스어의 부정 체계에서는 NE가 완전히 사라지고 pas, point과

---

12) 이는 한국어에서도 일종의 강조 전략으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13) pas, point과 같이 NE에 덧붙여 사용되는 부정 요소를 가리켜 흔히 '보조사'라고 하는데, 현대 프랑스어 문법에서 이것은 단어 auxiliaire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aucun(ne)/aucunement, guère, jamais, nul(le)/nullement/nulle part, personne, plus, que, rien 등의 다른 보조사들만으로도 완전한 부정 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1. 고전 라틴어	*non*	Verbe	
2. 고대 & 중세 프랑스어	*ne*	Verbe	(*pas* etc.)
3. 고전 프랑스어	*ne*	Verbe	*pas* etc.
4. 현대 프랑스어	(*ne*)	Verbe	*pas* etc.
5. 미래 프랑스어		Verbe	*pas* etc.

[표 2] 프랑스어 표준 부정소의 통시적 변화[14]

이처럼 프랑스어의 표준 부정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심이 NE에서 pas 등의 보조사로 이동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에 현대 프랑스어의 구어(langue orale)에서는 점점 NE가 생략되고 pas 등의 보조사가 부정의 표현을 전담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 문어(langue écrite)에서는 NE의 생략이 굉장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NE의 사용이 표준으로 규정되고 있다(*L.B.U.*, 2016:1398, §1022). 따라서 실제 프랑스어 발화에서는 구어를 중심으로 NE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문법서에서는 ne ~ pas/jamais/personne/plus/que/rien 등의 다양한 부정소를 인정하면서 NE의 쓰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14) Ashby(1981:675)

2.2. NE의 용법

프랑스어 NE는 크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부사(adverbe négatif)'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허사(explétif)'의 용법을 갖는다.

2.2.1. 부정 부사 ne

NE가 부정 부사 ne로 기능하는 경우, 전통 문법에서는 부정 부사 ne의 용법을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보조사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결합적 용법', 후자를 '독립적 용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2.2.1.1. 결합적 용법

전통 문법에서는 부정 부사 ne의 결합적 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부정 부사 ne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부정의 양상에 따라 '절대적 부정(négation absolue)'과 '상대적 부정(négation relative)'으로 구분한다.[15] 다음으로, 부정 부사 ne가 접속사 que와 결합함으로써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켜 '제한의 ne(*ne* restrictif)'라고 부른다.

---

15) 학자에 따라 절대적 부정을 '문장부정(négation de phrase)' 또는 '전체부정(négation totale)'으로, 그리고 상대적 부정을 '성분부정(négation de constituant)' 또는 '부분부정(négation partielle)'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L.B.U.*(2016: 1386-1389, §1015-1016)의 용어 '절대적 부정'과 '상대적 부정'을 선택하여 사용했다.

2.2.1.1.1. 절대적 부정

절대적 부정이란 술어로 표현되는 사실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로, 이때 부정 부사 ne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사로는 pas, point, aucunement, nullement 등이 있다. point은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며 pas보다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aucunement과 nullement은 pas나 point에 비해 드물게 쓰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L.B.U.*, 2016:1386, §1015).

(9) a. On **ne** parle **pas**.
b. Elle **ne** travaille **point**.
c. On veut voir dans sa définition ce qui **ne** s'y trouve **aucunement**. (Aragon)
d. L'écriture **n**'est **nullement** un moyen de communication. (Barthes)

예문 (9a)~(9d)에서 ne ~ pas/point/aucunement/nullement은 각각 술어 '말하다(parler)', '일하다(travailler)', '발견되다(se trouver)', '~이다(être)'의 사행을 그 자체로 부정한다. 또한, pas, point, aucunement, nullement 이외에도 brin, goutte, maille, mie, mot 등과 같이 적은 수량이나 면적, 중요하지 않은 것 등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도 절대적 부정의 보조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조사의 선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L.B.U.*, 2016:1386).

2.2.1.1.2. 상대적 부정

상대적 부정은 술어가 나타내는 사실 중 일부분만이 제한적으로 부정되는 경우로, 이때 부정 부사 ne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사로는 부정한정사(déterminant indéfini) aucun(e), nul(le)과 부정대명사(pronom indéfini) aucun, nul, personne, rien, 부사 guère, plus, jamais, nulle part 등이 있다.[16] 먼저, 부정한정사 aucun(e)과 nul(le)의 경우를 살펴보자.

(10) a. Je n'ai aucune idée.
b. Nul homme n'est hypocrite dans ses plaisirs. (Camus)

예문 (10a)에서 aucune는 술어 avoir의 직접목적보어인 명사 idée를 한정하며, 예문 (10b)에서 nul은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 homme를 한정한다. 부정한정사 aucun(e)과 nul(le)은 그것이 한정하는 구성성분의 양(量)을 부정함으로써 '아무런 ~이/가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예문 (10a)는 '아무런 생각이 없음'의 의미를, 예문 (10b)는 '자신의 쾌락에 있어서 위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부정대명사 aucun, nul, personne, rien의 경우이다.

(11) a. Aucun n'a répondu.
b. Nul n'en doute.
c. Personne n'est parfait.
d. Qui n'a rien, ne risque rien.

---

16) 부정한정사와 부정대명사에서 단어 '부정(不定)'은 '정해지지 않음(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부정(négation, 否定)'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부정(不定)'을 '부정(indéfini)'으로 표기함으로써 '부정(否定)'과 구분되도록 할 것이다.

예문 (11a)와 (11b), (11c)에서 aucun, nul, personne는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며, 각각 '대답한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예문 (11d)의 rien은 각각 관계절의 술어 avoir와 주절의 술어 risquer의 직접목적보어로 기능함으로써,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부사 guère의 경우를 살펴보자.

(12) a. Le reste **ne** compte **guère**.

b. Il **n**'a **guère** de temps à te consacrer.

ne ~ guère는 긍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부사 beaucoup에 대응하는 부정으로, 양 또는 빈도, 정도가 '많거나 크지 않음', 즉 '거의 없거나 적음'의 의미를 나타낸다(Riegel et al., 2016:418). 위의 예문 (12a)는 긍정문 "Le reste compte beaucoup"에 대응되는 문장으로, 술어 compter의 사행의 '많은 정도'가 부정되어 '거의 중요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12b)는 긍정문 "Il a beaucoup de temps à te consacrer"에 대응되는 문장으로, 술어 avoir의 직접목적보어 temps의 '많은 양'이 부정되어 '내어줄 시간이 거의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 plus 또한 상대적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13) A: Il fume **encore**(**toujours**) ?

B: Non, il **ne** fume **plus**.

ne ~ plus는 술어 사행의 진행상을 부정함으로써 '과거의 상태 또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낸다(Riegel et al., 2016:

418). 예문 (13)에서 ‘그가 아직도(여전히) 담배를 피우는지’ 묻는 A에게 B는 ‘그는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는다’고 답한다.

부사 jamais와 nulle part 또한 마찬가지이다.

(14) A: Est-ce que tu es **déjà** allée en Inde ?
B: Non, je **n**’y suis **jamais** allée.

(15) A: Avez-vous trouvé votre clé ?
B: Non, je la cherche **partout**, mais je **ne** la vois **nulle part**.

ne ~ jamais와 ne ~ nulle part는 각각 술어의 사행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부정함으로써, 술어의 사행이 각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음’, ‘아무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낸다(Riegel et al., 2016: 420). 먼저, 예문 (14)에서 ‘인도에 이미 가본 적이 있는지’ 묻는 A에게 B는 ‘인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예문 (15)에서 ‘열쇠를 찾았는지’ 묻는 A에게 B는 ‘사방을 찾아보지만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또한, 상대적 부정에서도 goutte, mot 등의 보통명사가 보조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어는 특정 동사와 어울려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goutte는 동사 voir, comprendre 등과 함께, mot는 말(言)과 관련된 동사 dire, souffler, sonner, piper 등과 함께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quiconque나 구 표현 âme vivante, âme/homme/femme/personne qui vive, qui/quoi que ce soit 등 또한 부정 부사 ne와 결합하여 상대적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L.B.U.*, 2016:1387, §1016).

한편, 상대적 부정의 용법에서 부정 부사 ne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 아래의 예문 (16)과 같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보조사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때 두 개의 보조사 중 한 개, 또는 세 개의 보조사 중 두 개는 긍정의 의미 값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정의 의미 값이 상쇄되는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L.B.U.*, 2016:1391-1392, §1019).

(16) a. Il n'y a plus rien.
b. Personne ne l'a jamais vue nulle part.

마지막으로, 절대적 부정의 보조사 pas, point이 aucun(ne), guère, jamais, nul(le), personne, rien 등의 상대적 부정의 보조사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L.B.U.*(2016:1392, §1019b). 예를 들어, 문장 "Ce n'est pas rien(아무 것도 아니야)"과 같이, 절대적 부정의 ne ~ pas에 상대적 부정의 보조사 rien이 더해져 부정의 의미가 상쇄되어 긍정의 의미가 표현될 수도 있다(*L.B.U.*, 2016:1393, §1019c).

2.2.1.1.3. 제한의 ne

부정 부사 ne는 접속사 que와 결합하여 쓰여 부사 seulement과 마찬가지로 '제한(restriction)'의 의미를 나타낸다. ne ~ que는 실질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문장은 긍정의 의미적 특성을 띠지만, 전통 문법에서는 이를 '완화된 부정(négation infirmé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L.B.U.*, 2016:1390, §1018a).[17] ne ~ que의 제한은 술어의 뒤에 위치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구성성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17) Moignet(1959:50-51)에 따르면, 후기 라틴어 표현 'non aliud quam(ne autre que)'에서 기원하는 ne ~ que는 '다르지 않음(non-hétérogénéité)', 즉 '같음(identité)'의 관계를 표현한다(*L.B.U.*, 2016:1390, §1018H1, 재인용).

(17) a. Elle <u>ne</u> pense <u>qu</u>'à elle-même.

b. Le bonheur <u>ne</u> vaut <u>que</u> s'il est partagé.

위의 예문 (17a)에서 ne ~ que는 술어 penser의 사행이 간접목적보어 à elle-même에만 적용되도록, 예문 (17b)에서는 술어 valoir의 사행이 조건절 s'il est partagé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한다. 예문 (17a)와 (17b)는 각각 '그녀는 그녀 자신만 생각함'과 '행복은 나눌 때에만 가치가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며, 각각 문장 "Elle pense <u>seulement</u> à elle-même"와 "Le bonheur vaut <u>seulement</u> s'il est partagé"로 바꾸어 쓰일 수 있다.

한편, 제한의 의미를 술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예문 (18)과 같이 일반적으로 'ne faire que + 부정법 동사'의 구조가 사용된다. 예문 (18)은 '그는 오로지 변명을 늘어놓기만 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18) Il <u>ne fait que</u> donnner ses excuses.

2.2.1.2. 독립적 용법

부정 부사 ne는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사용되지만 부정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 경우인 '허사 ne'와의 편리한 대조를 위해, 전통 문법에서는 이를 '부정의 ne(*ne* négatif)'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정의 ne는 일상적인 문체보다는 주로 문학작품이나 격식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NE가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부정의 기능을 다했던 옛 프랑스어의 흔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Riegel et al., 2016:418).

L.B.U.(2016:1383-1386, §1013-1014)를 포함한 대표적인 프랑스어 문법서에서는 부정 부사 ne의 독립적 용법을 부정 부사 ne가 반드시 혼자 쓰여야 하는 경우와 화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 부정소 ne ~ pas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한편, Wartburg & Zumthor(이하 WZ, 1973:44-47)는 ne ~ pas에 의한 부정은 객관적이며 부정의 ne에 의한 부정은 주관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화자가 부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보조사를 생략하고 부정 부사 ne만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무언가를 부정하는 행위 이상으로 그 자신이 발화의 내용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태도나 감정까지도 표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L.B.U.*(2016)의 구분을 따라, 부정 부사 ne의 독립적 용법을 부정 부사 ne가 반드시 혼자 쓰여야 하는 '의무적 용법(emploi obligatoire)'과 부정소 ne ~ pas로 대체될 수 있는 '임의적 용법(emploi facultatif)'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8]

2.2.1.2.1. 의무적 용법

부정 부사 ne가 다른 보조사 없이 반드시 혼자 쓰여야 하는 의무적 용법은 대부분 속담이나 오래 전부터 굳어져 사용되어 온 관용구 표현에 해당한다.

(19) a. Il <u>n</u>'est pire sourd que celui qui ne veut pas entendre.
b. A Dieu <u>ne</u> plaise !
c. <u>n</u>'importe + 의문사
d. <u>n</u>'avoir crainte/cure/garde de …

---

18) 본 연구에서는 *L.B.U.*(2016) 이외에도 BB(1969)와 WZ(1973), Charaudeau(1992), Wilmet(1997), Grevisse(2005), Riegel et al.(2016)을 참고했다.

앞의 예문 (19a)와 같이 Il n'est ~ que/qui 구문에서 종속절이 부정(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절에서 다른 보조사 없이 부정 부사 ne만을 사용하면 속담과 같은 격언조의 느낌을 낼 수 있다(WZ, 1973:45). 이외에도 부정 부사 ne는 아래의 예문 (20a) ~(20d)과 같은 구문에서도 다른 보조사 없이 반드시 혼자 사용된다.

(20) a. Je **ne** savais que répondre.
b. Que **ne** le disiez-vous ? (WZ, 1973:46)
c. Ce **n**'est utile ni pour moi ni pour toi.
d. Je n'irai point là que tout **ne** soit prêt.
(*L.B.U.*, 2016:1384)

먼저, 예문 (20a)와 같이 동사 savoir나 avoir의 직접목적보어로 '의문대명사 que + 부정법 동사'가 쓰인 구문에서 부정 부사 ne는 반드시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낸다. 이때 부정의 ne 대신 부정소 ne ~ pas가 쓰인다면, 의문대명사로는 que 대신 quoi가 쓰여 "Je **ne** savais **pas** **quoi** répondre"라고 해야 문장의 문법성이 유지된다.

다음으로, 예문 (20b)와 같이 의문 또는 감탄 부사 que가 pourquoi의 의미로 쓰이는 구문이 있다. 문장 "**Pourquoi** **ne** le disiez-vous **pas** ?"가 상대방에게 '그것을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단순한 의문문이라면, 예문 (20b)는 이유를 묻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이나 비난 등과 같은 감정적인 정보까지 함께 전달한다(WZ, 1973:46).

의무적 용법의 세 번째 유형은 예문 (20c)와 같이 부정 부사 ne가 접속사 ni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단, 문장의 술어가 접속사 ni가 연결하는 요소들의 전체 또는 일부에 선행하는 경우, 보조사 pas 또는 point이

동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L.B.U.*, 2016:1383, §1013). 예를 들어, 위의 예문 (20c)의 경우, 접속사 ni가 전치사구 pour moi와 pour toi를 연결하고 있으면서 술어에 후행하므로, “Ce n’est point utile ni pour moi ni pour toi”와 같이 쓰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 (20d)와 같이 주절이 부정의 맥락을 띨 때 접속사 que가 이끄는 종속절이 sans que 또는 tant que의 의미로 쓰여 접속법 형태의 동사를 취하는 경우, 종속절에서의 부정은 다른 보조사 없이 부정 부사 ne만으로 표현된다. 예문 (20d)의 경우, 접속사 que는 tant que의 의미로 쓰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그곳에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된다.[19]

2.2.1.2.2. 임의적 용법

부정 부사 ne가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쓰였으나 화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부정소 ne ~ pas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1) a. Cela ne cesse de progresser.

b. On ne saurait contenter tout le monde.[20]

---

19)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Wilmet(1997:509-510)는 Larrivée(1995)를 인용하며, 아래의 예문 (a)~(c)처럼 동사가 접속법의 형태를 취하는 종속절이나 부정법 동사의 보어절 또는 명령문의 내용이 잠재적인 특성을 지닐 때 부정 부사 ne는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a) Comme c’est triste que la société ne soit un perpétuel bal blanc.

(b) Le voyant déçu de ne trouver parmi elles la compagne.

(c) Ne me défiez !

20) Grevisse(2005:221)에 따르면, 동사 savoir의 경우, 예문 (21b)처럼 동사가 조건법으로 쓰여 pouvoir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의미적으로 ‘불확실함’의 해석을 지닐 때 부정의 ne로 부정되고, 동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부정소 ne ~ pas가 사용된다.

위의 예문 (21)은 부정의 ne의 임의적 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cesser, daigner, oser, pouvoir, savoir 등과 같이 상(像)이나 양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단순 시제로 쓰이거나 그 보어로 부정법 동사가 사용되는 구문에 해당한다(*L.B.U.*, 2016:1384, §1014b)1°).

한편, 앞에서 밝힌 것처럼 WZ(1973:44-45)는 부정의 ne에 의한 부정과 부정소 ne ~ pas에 의한 부정을 각각 주관적인 부정과 객관적인 부정으로 구분한다. 아래의 예문 (22)를 살펴보자.

(22) a. Il **ne** cesse de se plaindre.

b. Malgré sa fatigue, elle **ne** cesse **pas** de travailler.

(WZ, 1973:45)

동사 cesser는 예문 (22a)에서는 부정의 ne로, 예문 (22b)에서는 부정소 ne ~ pas로 부정된다. 예문 (22a)에서 부정의 ne는 '그의 멈추지 않는 불평'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지겨운 감정까지 함께 표현하는 반면, 예문 (22b)는 '그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일함'을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 확인하는 발화일 뿐이다(WZ, 1973:45).

이외에도 부정의 ne의 임의적 용법을 허용하는 구문으로 다음 여섯 가지 유형의 구문을 추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예문 (23a)~(23d)를 통해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23) a. Si je **ne** me trompe, c'est bien lui.

b. Je **ne** la verrai de longtemps/de ma vie/de sitôt.

c. Je **n**'ai d'autre choix que de partir.

d. J'ai trouvé un emploi depuis que je **ne** l'ai vu.

예문 (23a)는 접속사 si가 이끄는 조건절 구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문 (23b)와 같이 de longtemps, de ma vie, de sitôt 등의 표현이 pas를 대신하여 일종의 보조사로서 기능함으로써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구문이 있다. 예문 (23c)는 차등 비교표지 autre가 사용된 불평등 비교구문이 부정(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내며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문 (23d)에서 Il y a/voici/voilà/ça fait ~ que 구문이나 depuis que와 같이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동사가 복합 시제로 쓰일 때 que 이하의 종속절에서 부정의 ne가 쓰이는 구문이 있다.[21]

마지막으로, 아래의 예문 (24)와 (25)를 통해 나머지 두 유형을 더 살펴보자.

(24) a. Qui **ne** court après la Fortune ?
b. Quel plaisir **n**'a son amertume ?

(25) a. Il n'est choc si menu qu'il **ne** provoque (…) un vaste remuement. (*L.B.U.*, 2016:1384, §1014)
b. Y a-t-il quelqu'un qui **n**'en soit persuadé ?

---

21) 그러나 Il y a/voici/voilà/ça fait ~ que 구문이나 depuis que 구문에서 NE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해석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허사 ne'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문 (23d)에서 NE가 생략된 문장 "J'ai trouvé un emploi depuis que je l'ai vu"와 예문 (23d)는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를 보았고 그 이후에 일자리를 구했다는' 동일한 상황을 지시한다. 그러나 Larrivée(1995:21)는 물이 정확히 반 들어 있는 컵을 보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또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와 같이 긍정문과 부정문의 발화가 모두 가능하듯이, 문제의 두 문장 또한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예문 (23d)의 경우 부정의 ne를 통해 '내가 그를 보지 못한 기간'이 환기되는 반면, NE가 쓰이지 않은 문장에서는 '내가 그를 본 이후의 기간'이 환기된다는 것이다. 한편, *L.B.U.* (2016:1386)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현재나 반과거의 시제로 쓰이면서 동사가 부정될 때에는 반드시 부정소 ne ~ pas를 사용해야 한다.

위의 예문 (24)는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한정사가 쓰여 수사적 의문문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문 (24a)는 '행운의 여신을 쫓지 않는 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행운의 여신을 쫓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예문 (24b)는 '어떤 쾌락이 쓴맛을 갖지 않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쾌락이라 해도 쓴맛을 가지기 마련임'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 (25)와 같이, 주절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이룰 때, 관계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절에서 동사가 접속법 형태를 취할 때 부정의 ne가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어 NE는 부정 부사 ne로서 때로는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양상의 부정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때로는 보조사 없이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2.2.2. 허사 ne

프랑스어에서 NE는 문장에서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 쓰여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 허사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어로 흔히 '허사(虛辭)'라고 번역되는 프랑스어 explétif는 '채우다(remplir)'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 explere에서 유래하며, 사전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으면서 문장을 채우고 있는 요소"[22]로 정의된다. 다음의 예문 (26)을 살펴보자.

(26) a. Céline craint que Pierre **ne** dise la vérité.
b. Céline craint que Pierre dise la vérité.

---

[22] "qui sert à remplir la phrase sans être nécessaire au sens"(*Le Petit Robert 1.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82:734)

앞의 예문 (26a)에서 주어 Céline이 두려워하는 것은 'Pierre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주절 술어 craindre의 보어절에서 NE는 술어 dire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때 NE는 문장의 의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쓰인 허사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 (26a)와 그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생략된 예문 (26b)는 'Céline는 Pierre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동일하게 해석된다.

전통 문법에서는 허사 ne를 특정 구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허사 ne는 소위 '허사 ne 구문'이라 불리는 특정 구문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임의의 여러 다른 구문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법서마다 허사 ne에 대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부사 ne의 독립적 용법을 살피면서 참고한 문법서 *Précis de grammia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1969), *Précis de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1973)과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1992), *Grammaire critique du français*(1997), *Le petit Grevisse*(2005),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2016), *L.B.U.*(2016), 그리고 허사 ne의 출현을 광범위에 걸쳐 수집하고 형태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Muller(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을 다음 [표 3]과 같이 유형화하여 정리했다.

	통사 구조	세부 유형
1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예방’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2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
		Il s’en faut de peu que
3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
4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	

[표 3]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23]

2.2.2.1.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허사 ne는 ‘두려움’, ‘예방’, ‘금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 명사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

---

23) Muller(1991)는 [표 3]의 열한 가지 유형 이외에도 ‘부사 rarement이 문두에 위치한 구문’을 허사 ne 구문으로 분류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문에서의 NE를 부정 부사 ne로 간주하고자 한다.

(a) **Rarement** réquisitoire contre la guerre **n**’aura été aussi convaincant.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반전(反戰)을 주장하는 담화는 드물 것이다.’

위의 예문 (a)는 문장에서 NE를 생략할 시 부사 rarement이 그대로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점에서, 허사 ne를 자유롭게 생략 가능한 다른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실제로 부사 rarement과 NE의 결합은 ne ~ guère 또는 ne ~ presque jamais와 마찬가지로 ‘거의 ~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예문 (a)는 사실상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반전을 주장하는 담화는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L.B.U.*(2016:1389)는 부사 rarement과 같이 부정의 보조사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句)가 술어보다 앞에 위치할 때, 의미의 유사 작용으로 인해 형태 NE의 출현이 야기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허사 ne가 아닌 ‘부정의 ne’, 즉 부정 부사 ne의 독립적 용법으로 간주한다.

절의 경우, 주절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의 여부가 보어절에서의 허사 ne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출현 양상은 네 가지 세부 유형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허사 ne는 아래의 예문 (27)과 같이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27) a. Dès lors, ils pouvaient **craindre que** je **ne** fasse un usage irresponsable de leurs paroles.

b. C'est **l'angoisse que** cela **ne** tourne mal sur le terrain.

c. Les pouvoirs publics en revanche, **inquiets que** cette question **n**'entrave (…), aimeraient débloquer au plus vite la situation.

(Muller, 1991:362-365, 재인용)

이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동사 appréhender, craindre, redouter, s'effrayer, s'inquiéter, trembler, 동사구 avoir peur, 형용사 anxieux, inquiet, préoccupé, 명사 angoisse, anxiété, crainte, frayeur, inquiétude, peur, trouille 등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danger, risque/risquer, écueil, obsession 등이 있다.[24] '두려움'의 의미 유형의 경우,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절이 긍정문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허사 ne는 아래의 예문 (28)과 (29b)와 같이 '예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empêcher, éviter, 동사구 prendre garde 등의 보어절

---

[24] Muller(1991:383)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 (a)와 같이, 본래는 '운',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chance가 문맥상에서 비유적으로 '위험'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그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하기도 한다.

(a) Le président Carter a tenu à réaffirmer que (…), **les chances que** cette affaire **ne** devienne un incident international en seraient diminuées.

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주절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의 여부는 허사 ne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Un maire explique que son problème, c'est d'**éviter qu**'on **ne** réagisse à un tel meurtre. (Muller, 1991:368, 재인용)

(29) a. Prenez garde qu'on vous trompe.
b. Prenez garde qu'on **ne** vous trompe.
c. Prenez garde qu'on **ne** vous trompe **pas**.

그런데 예문 (29)의 동사구 prendre garde의 경우, que 이하의 보어절에서 NE가 쓰이지 않았든, 허사 ne가 쓰였든 또는 부정소 ne ~ pas가 쓰였든 간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문 (29a)와 (29b), (29c)는 모두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해석된다.[25]

다음으로, 허사 ne는 아래의 예문 (30)과 같이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30) a. Il **avait interdit qu**'avant leur vente ces bijoux **ne** soient portés par une autre femme que la sienne (…).

---

25)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동사구 prendre garde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적인 중의성에서 기인한다. NE가 쓰이지 않은 예문 (29a)와 허사 ne가 쓰인 (29b)의 경우, 동사구 prendre garde는 동사 éviter와 마찬가지로 '예방'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보어절의 내용은 '예방해야 할 결과'로 간주된다. 반면, 부정소 ne ~ pas가 쓰인 예문 (29c)의 경우, 동사구 prendre garde는 '~하도록 조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예문 (29c)는 문장 "Faites en sorte qu'on **ne** vous trompe **pas**"로 치환될 수 있다 (Muller, 1981:370).

b. La Haute Autorité a dû s'opposer fermement à ce qu'une fréquence de Radio-France ne lui soit tout bonnement offerte !

(Muller, 1991:372, 재인용)

'금지'의 의미 유형이 허사 ne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문법서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옛날에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défendre와 interdire의 보어절에서 허사 ne를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L.B.U.*, 2016:1401, §1024R2). 그럼에도 불구하고 Muller(1991:372)는 현대 프랑스어에서도 여전히 '금지'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interdire, s'opposer, déconseiller, refuser 등의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금지'의 의미 유형에 대하여, 주절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의 여부가 허사 ne의 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허사 ne는 다음의 예문 (31)과 같이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31) a. Je ne doute pas, cependant, que son discours, s'il avait pu se poursuivre (…), n'ait pu connaître des transformations.

b. (…) nul doute que ces organismes, (…), ne cherchent à obtenir en conséquence une baisse des taux d'intérêt (…).

c. (…) il n'est pas douteux qu'il ne soit disposé à s'en servir.

(Muller, 1991:374, 재인용)

이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동사 contester, disconvenir, douter, nier, 명사 doute, 형용사 douteux 등이 있다. '부정/의심'의 의미 유형의 경우,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절이 반드시 부정문이거나 의문 또는 의심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인 부정을 표현하는 수사적 의문문이어야 한다.

한편, 완전히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보어절의 내용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사 dissimuler, éliminer, exclure, méconnaître 등의 보어절에서도 허사 ne가 출현하기도 한다(Muller, 1991:373-376). 이렇게 '부정/의심'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구문들은 보어절의 내용이 실행되는 것을 반박하는 단어의 의미 값이 주절의 부정 맥락에 의해 다시 한 번 부정됨으로써 의미적으로 '이중 부정(double négation)'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보어절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음', 즉 '보어절의 내용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의 의미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예문 (32)와 같이 주절에서 형용사 impossible이나 rare가 부정될 때에도 그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사용되기도 한다.

(32) Il <u>n'est pas impossible que</u> l'on <u>ne</u> doive envisager un échec. (Muller, 1991:375, 재인용)

2.2.2.2.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허사 ne는 비인칭 주어 Il이 사용되는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Il tarde à ~ que의 보어절을 살펴보자.

(33) Il me tarde que cela ne soit déjà, et il me semble que ce moment n'arrivera jamais.

(Muller, 1981:376, 재인용)

허사 ne는 위의 예문 (33)과 같이 '~하기를 몹시 기다림(impatience)'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위 구문과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attendre, mourir나 형용사 impatient, 명사 impatience의 보어절에서도 허사 ne가 발견된다(Muller, 1981:376).[26]

다음으로, 허사 ne는 아래의 예문 (34)와 같이 '~에 달려 있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인칭 구문 Il ne tient pas à ~ que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34) a. Il ne tient pas à Votre Majesté que l'humanité ne respire enfin après tant de malheurs. (Martin, 1984:104, 재인용)

b. A quoi tient-il donc que la vérité ne triomphe dans votre cœur ? (Grevisse, 2005:223, 재인용)

비인칭 구문 Il ne tient pas à ~ que와 유사하게 '~에 달려 있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인칭 구문 Il ne dépend pas de ~ que의 보어절에서도 때때로 허사 ne가 발견된다(*L.B.U.*, 2016: 1403).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허사 ne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절이 반드시 예문 (34a)와 같이 부정문이거나 예문 (34b)와 같이 부정의 맥락을 나타내는 수사적 의문문이어야 한다(Grevisse, 2005:223).

---

26) 아래의 예문 (a)는 고전주의 극작가 Corneille의 문장이다.

(a) Impatient pour eux que la cérémonie
Ne commence bientôt, ne soit bientôt finie (Muller, 1981:376, 재인용)

마지막으로,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을 살펴보자.

(35) a. Il s'en est fallu de peu que Marie ne s'en aille.

(Wilmet, 1997:511)

b. Peu s'en fallut que cette aventure ne leur devînt funeste.

(WZ, 1973:48)

허사 ne는 위의 예문 (35)와 같이 '거의 ~할 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인칭 주어 Il이 생략된 변형 구문 Peu s'en faut que의 보어절에서도 허사 ne가 사용될 수 있으며, 아래의 예문 (36)과 같이 주절에 부사 peu가 아닌 다른 단어나 구(句)가 쓰여도 그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사용될 수 있다(Muller, 1991:380).

(36) Et qu'il s'en faut plus d'un grand demi-pied que leurs hauts de chausses ne soient assez larges.

2.2.2.3. 상황 종속절

허사 ne는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에서 사용될 수 있다. avant que와 à moins que 구문의 경우, 주절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의 여부가 허사 ne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sans que 구문에서 허사 ne가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절이 부정문이어야 한다.[27] 먼저, avant que 구문을 살펴보자.

---

27) 이 세 가지 상황 종속절 구문은 접속사 que뿐만 아니라, 'avant de/à moins de/sans + 부정법 동사'의 구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허사 ne는 사용되지 않는다.

(37) (…) On ne peut pas nous forcer à faire grève ou, tout au moins, pas avant que nous ne nous soyons prononcés.

(Muller, 1991:377, 재인용)

허사 ne는 주절 사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 즉 반드시 주절의 사건이 실현되고 나서야 실현될 사건을 나타내는 상황 종속절 avant que 구문에서 사용된다. 한편, Wilmet(1973:48)는 오로지 화자가 주절의 사건이 종속절의 사건보다 선행함을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에만 허사 ne가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문장 "Sortez avant qu'il ne pleuve"에서는 허사 ne가 쓰였으므로, 주절의 사건 '나가는 것'이 종속절의 사건 '비가 오는 것'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되는 반면, 문장 "Il dut sonner deux fois avant que la domestique se montrât"에서는 허사 ne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주절의 사건과 종속절의 사건 간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만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à moins que 구문을 살펴보자.

(38) Par définition, celle-ci (la réalité) demeure le plus souvent dissimulée et ignorée, à moins qu'un cas particulièrement flagrant n'attire l'attention sur une famille précise.

(Muller, 1991:378, 재인용)

허사 ne는 위의 예문 (38)과 같이 주절 사건의 실현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à moins que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hors que 구문에서도 허사 ne의 쓰임이 발견된다(Muller, 1978:81).

마지막으로, 허사 ne는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와 마찬가지로 주절 사건의 실현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sans que 구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39)를 살펴보자.

(39) Mais ces cris de toute une armée ne se peuvent pas représenter, sans que l'on n'en soit ému.

(Glättli, 1960:306, 재인용)

그런데 sans que 구문이 허사 ne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Glättli, 1960:300-302).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황 종속절 sans que 구문은 주절이 부정문일 때에만 허사 ne를 허용한다고 본다(*L.B.U.,* 2016:1405). 한편, 아카데미프랑세즈는 sans que 구문에서 NE가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면서 쓰이는 것은 일종의 문법적인 오류라고 설명하면서도 격식체에 한해서는 주절이 부정문일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2.2.2.4.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

허사 ne는 plus, moins, meilleur, mieux, moindre, pire, ailleurs, autre/autrement, différent/différemment, plutôt 등의 불평등 비교표지가 사용된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사용될 수 있다.

(40) a. Il m'a fait une meilleure impression que je n'aurais pensé.
b. Il est moins laid que je n'aurais cru.
c. Il agit autrement qu'il ne parle.

(WZ, 1973:48)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절이 긍정문을 이룸으로써 반드시 불평등 비교관계가 표현되어야 한다 (*L.B.U.*, 2016:1403).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aussi, autant, tant 등의 동등 비교표지가 사용된 동등 비교구문에서 주절이 부정됨으로써 불평등 비교관계가 표현될 때에도 아래의 예문 (41)과 같이 그 종속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할 수 있다.[28]

(41) (…) cet idiot de Tatti, qui n'était peut-être pas tout à fait aussi bête qu'on ne l'imaginait, s'arrangeait toujours pour faire rouler Tintin ou pour rouler lui-même du côté de la lisière du bois (…).

(Wilmet, 1997:510, 재인용)

전통 문법에서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의 NE는 명시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를 변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허사 ne로 간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의 NE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불평등 비교구문 "Elle est plus grande que je ne le

---

28) *L.B.U.*(2016:1403)와 Wilmet(1991:510)에 따르면,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아래의 예문 (a), (b)와 같이 불평등 비교구문의 주절이 부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등 비교관계를 나타낼 때나, 예문 (c)와 같이 일반적인 동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도 허사 ne가 드물지 않게 출현한다. Muller(1991:439)는 이를 불평등 비교구문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언어적 오염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a) La table n'est pas aussi petite que la locutrice ne le craignait.

(b) Chacun d'eux ne trouble point tant qu'il n'avertit. (*L.B.U.*, 2016:1403, 재인용)

(c) La guerre a fait sur mer, sur terre et dans l'air autant de victimes (…) que n'en a infligé l'ennemi, si difficile à atteindre, et surtout à reconnaître, à poursuivre. (Muller, 1991:439, 재인용)

pensais”의 종속절에서 출현한 NE는 ‘나는 그녀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음(“Je **ne** pensais **pas** qu’elle fût aussi grande”)’과 같은 함축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Riegel et al., 2016:420).

한편, Wilmet(1991:510)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 나타나는 NE는 구문에 내포된 ‘다름(disparité)’의 비교관계를 상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 비교구문 “Pierre est **plus** épris de Marie **qu**’elle **ne** l’est de lui”는 ‘(Pierre와 Marie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Pierre이고, 가장 적게 사랑하는 것은 Marie임’ 또는 ‘Pierre는 Marie를 매우 사랑하지만, Marie는 Pierre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음’과 같이 해석된다.[29] 이러한 관점에서 Wilmet(1991:512-513)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의 형태 NE에 허사 ne도 부정 부사 ne도 아닌 ‘비교의 ne(*ne* comparatif)’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허사 ne 구문에서 허사 ne를 포함하는 보어절 또는 종속절의 동사는 접속법의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동사는 직설법의 형태를 띤다. 둘째, 허사 ne와는 달리 비교의 ne는 부정 부사 ne와 마찬가지로 이중 관사 du, de la, des를 ‘부정의 de’로 변형시킨다. 셋째,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는 quelque chose, quelqu’un, un jour 등과 같이 긍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nul, rien, personne, jamais 등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단어의 사용이 더욱 자연스럽다. 아래의 예문 (42)를 살펴보자.

(42) ?? Pierre aime Marie **plus qu**’il **n**’a **un jour** aimé **quelque chose** ou **quelqu’un**.

---

2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haraudeau(1992:558)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의 NE를 부정 부사 ne가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의 ne’의 용법으로 간주한다.

‘Pierre는 이전에 무언가나 누군가를 좋아했던 것보다 더 많이 Marie를 좋아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예문 (42)는 문법성이 떨어진다. 이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 값을 동시에 지니는 단어들을 사용한 문장 “Pierre aime Marie plus qu’il n’a jamais aimé rien ou personne”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한다.[30]

마지막으로, 고전 프랑스어의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는 아래의 예문 (43)과 같이 때때로 NE가 pas 등의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여 부정소 ne ~ pas 등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은 다른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43) a. Vous avez plus faim que vous ne pensez pas. (Molière)

b. Il faut avoir l’esprit plus libre que je ne l’ai pas. (Racine)

(Wilmet, 1991:513, 재인용)

30) 허사 ne 구문에 해당하는 동사 craindre의 보어절의 경우, NE와 어떤 요소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진다.

(a) Pierre craint qu’il ne vienne un jour quelqu’un.

(b) Pierre craint qu’il ne vienne jamais personne.

위의 예문 (a)에서 주어 Pierre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언젠가 누가 오는 것’이며, (b)에서는 ‘영원히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다. 즉, NE는 예문 (a)에서는 허사 ne로, 예문 (b)에서는 보조사 jamais, personne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 ne로 다른 쓰임을 나타낸다.

2.3. 기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프랑스어에서 NE가 때로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냈다가 때로는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Damourette & Pichon(이하 DP, 1930)과 Muller(1991)가 있다. 본 절에서는 DP(1930)와 Muller(1991)가 제안한 NE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각각의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DP(1930:131-138:§115)는 프랑스어 부정소 ne ~ pas/jamais/personne/rien 등을 '불일치소(discordantiel)' ne와 '배제소(forclusif)'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두 요소가 각각 혼자 쓰이거나 또는 함께 쓰임으로써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31] 이때 NE는 문장에 내포된 불일치(discordance)의 개념을 나타내는 '불일치소'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별되는 용법을 지닌다. 아래의 예문 (44)를 살펴보자.

(44) a. Nous <u>n</u>'y pensons <u>pas</u>, nous <u>ne</u> sentons <u>rien</u>.
b. C'est vrai, elle <u>n</u>'a <u>que</u> moi et il m'en coûte de la quitter.
c. Il a <u>plus</u> de génie <u>qu</u>'il <u>n</u>'en a l'air.

(DP, 1930:130-132, 재인용)

먼저, 예문 (44a)에서와 같이, 불일치소 NE는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의 배제소와 함께 쓰여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대

31) 본 연구에서는 용어 discordantiel과 forclusif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그 본질이 문장에 내포된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임을 반영하여 '불일치소'라고 번역하고, 후자의 경우 정신분석학자 Lacan이 DP(1930)의 이론으로부터 차용하여 고안한 개념적 용어 forclusion이 흔히 '배제(排除)'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배제소'라고 번역했다.

프랑스어에서는 NE 혼자서도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냈으나, 형태 NE가 단음절이라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pas, jamais, personne, rien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긍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배제소가 함께 쓰임으로써 그 부정의 의미를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ne ~ pas/jamais/personne/rien 등의 형태에서 NE가 생략된 pas, jamais, personne, rien 등만으로도 부정의 의미 표현이 가능해졌다(DP, 1930:130).

다음으로, 불일치소 NE는 접속사 que와 함께 쓰여 부정의 영역에서 que가 이끄는 대상만이 제외된 의미, 즉 제한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앞의 예문 (44b)에서 주어 Elle은 직접목적보어인 moi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일치소 NE는 특정 구문의 종속절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흔히 '허사 ne'라고 불리는 용법에 해당한다. 불일치소 NE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지 않은 채 혼자 쓰여 문장에 내포된 불일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불일치소 NE가 출현하는 대표적인 구문으로는 비교하고자 하는 자질과 비교 기준이 되는 척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이 있다(DP, 1930:131). 즉, 앞의 예문 (44c)의 경우, 주어 Il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천재성과 표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천재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종속절에서 불일치소 NE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 이외에도 '두려움', '예방',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 avant que에서도 불일치소 NE가 사용된다(DP, 1930:132-135).[32]

그러나 '불일치소'라고 주장한 DP(1930)의 NE의 메커니즘에서는 NE

[32] 한편, DP(1930)는 상황 종속절 avant que 구문의 경우, 불일치소 NE가 사용된 경우와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을 통해 이전의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표현되지만, 후자의 경우,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연속적으로 발생함의 의미만을 나타낼 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 이전의 사건이 끝났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DP, 1930:134).

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 쓰여서도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 즉 소위 '부정의 ne'라고 불리는 용법이 배제되어 있다. DP(1930)는 NE의 본질은 '불일치'이며 이는 오로지 다른 배제소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NE가 pas 등의 배제소 없이 혼자 쓰여서도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 쓰임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DP(1930)가 NE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불일치'의 개념은 그 성격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Fournier, 2004:52). 즉, DP(1930)는 NE가 특정 구문의 종속절에서 단독으로 출현할 때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때 이 '불일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아래의 예문 (45)와 같은 발화에서 허사 ne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45) Paul <u>regrette que</u> Marie soit partie.

위의 예문 (45)에서 주절 술어 regretter에 의해 표현되는 'Paul이 느끼는 아쉬움'은 '실제로는 Marie가 떠났지만 어쩌면 Marie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DP(1930)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곧 '실제로 Marie가 떠난 상태'와 Paul이 상상하는 'Marie가 떠나지 않은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바, 동사 regretter의 보어절에서도 불일치소 NE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어에서 동사 regretter의 보어절은 불일치소 NE, 즉 허사 ne의 출현을 허용하는 구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33]

---

33) Martin(1984)은 논리의미론의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DP(1930)의 '불일치' 개념을 보완하고자 했다. Martin(1984)의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는 4.1.2.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Muller(1991:59-60)는 프랑스어의 표준 부정소 ne ~ pas에서 의미의 핵심부는 NE가 아니라 pas이며, 이때 경우에 따라 '반(半)-부정소(semi-négatif)' 또는 '역(逆)-부정소(négatif inverse)'가 pas의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NE는 다양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34] 이때, '반부정소'란 pas와 긍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어휘의 결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Muller(1991)는 NE와 '반부정소'의 결합을 '부정 연합(association négative)'이라고 명명한다. 아래의 예문 (46)을 살펴보자.

(46) a. Vous **n**'arrivez **jamais** en avance.
b. Je **n**'en parle à **personne**.
c. Elle **ne** mange **rien**.

프랑스어의 '반부정소'로는 aucun, aucunement, guère, jamais, ni, nul, nullement, nulle part, personne, plus, que, rien 등이 있다(Muller, 1991:250). 예를 들어, jamais, personne, rien은 각각 'pas une (seule) fois', 'pas quelqu'un/qui que ce soit', 'pas quelque chose/quoi que ce soit'로 대체될 수 있다. 즉, 위의 예문 (46a) ~ (46c)는 각각 "Vous **n**'arrivez **pas une fois** en avance", "Je **n**'en parle à **qui que ce soit**", "Elle **ne** mange **quoi que ce soit**"로 완벽하게 대체된다.

한편, Muller(1991)는 긍정의 값을 지니는 의미핵에 부정의 의미 값이 종속적으로 결합된 양상을 띠는 단어를 가리켜 '역부정소'라고 정의하며, NE와 '역부정소'의 결합을 '역부정 연합(association négative inverse)'이라고 부른다. 이는 전통적으로 '허사 ne'라고 부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

34) 본 연구에서는 용어 semi-négatif와 négatif inverse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접두사 semi(半)의 의미를 반영하여 '반부정소'라고 번역하고, 후자의 경우 형용사 inverse(逆)의 의미를 반영하여 '역부정소'라고 번역했다.

즉, '역부정소' X는 긍정의 값을 지니는 의미핵 Y와 부정 연산자의 결합으로 자연스럽게 환원될 수 있으며, 이때 부정 연산자는 Y가 아닌 Y의 보어(complément)에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역부정소' X의 기저에 함축되어 있는 부정 연산자를 문장에서 표지해주는 것이 바로 X와 결합하는 NE, 즉 '허사 ne'인 것이다. 아래의 예문 (47)을 살펴보자.

(47) Evitez qu'il ne vous voie.

위의 예문 (47)에서 주절 술어 éviter는 '피하다', '면하다', '삼가다' 등으로 자체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휘로서, 'faire en sorte que ne pas(~하지 않도록 하다)'와 같이 긍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어휘부 faire en sorte que와 그 보어절에 쓰인 부정 연산자 ne ~ pas의 결합으로 환원되는 '역부정소'이다. 따라서 예문 (47)은 "Faites en sorte qu'il ne vous voie pas"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예문 (47)에서 술어 éviter의 보어절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NE는 그 기저에서 faire en sorte que의 보어절에 포함된 부정 연산자 ne ~ pas를 표지하는 것이다. 이에 Muller(1991)는 화자가 문장에 함축된 부정의 의미 값을 의식한 결과 NE를 사용하여 해당 발화가 함의하는 부정의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NE가 '반부정소'든 '역부정소'든 어떤 요소와 결합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기호라는 Muller(1991)의 주장은 NE의 복잡한 쓰임을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허사 ne를 NE와 역부정소의 결합이라는 통사적인 조건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실제 프랑스어 발화에서 허사 ne는 화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생략되기도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Muller(1991)의 주장은 한계를 갖는다

(Fournier, 2004:53). 가령, 위의 예문 (47)은 보어절에서 NE가 생략된 채 “Évitez qu’il vous voie”로 대체해도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DP(1930)와 Muller(1991)가 각자의 고유한 이론적인 틀 안에서 프랑스어 NE의 복잡한 쓰임을 체계화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DP(1930)의 경우 NE에 대해 가능한 용법들 가운데 일부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주요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Muller(1991)의 경우 허사 ne가 화자에 의해 문장에서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다는 화용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한계를 지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두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을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여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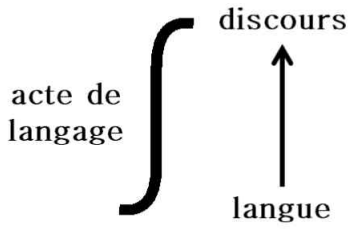
3.1. Guillaume의 정신역학론

Guillaume은 언어란 인간의 사고작용에 의해 작동하는 일종의 '정신체계(psychosystème)'라는 유심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 체계를 연구하는 '정신역학론(psycho-mécanique)'을 주창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학론에서 고안한 여러 개념들 가운데 '랑그(langue)'와 '담화(discours)',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 그리고 '의미차감(subduction)'을 취하여 NE의 정신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3.1.1. 랑그와 담화: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20세기 초 구조주의 언어학자 Saussure는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23-32)에서 인간의 언어(langage)는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이분된다고 주장했다. Saussure(1916)에 따르면, '랑그'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규약으로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파롤'이란 각각의 개인이 랑그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Guillaume(1984:28)은 Saussure의 이분법적인 관점은 실제 언어활동의 역동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언어활동이란 랑그에서 '담화(discours)'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인간의 '언어활동(acte de langage)'은 잠재적인 상태인 '랑그'

에서 실현된 상태인 '담화'로 이어지는 연속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Guillaume, 1982b:18).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언어활동의 정신체계

정신역학론에서 말하는 '랑그'란 화자의 무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표상(représentation) 체계를 가리키며, 이는 실제 언어 행위의 조건으로서 잠재하는 상태의 언어활동에 해당한다(Lowe, 2007:51-56). 따라서 랑그 단계에서의 언어활동은 실제 현상으로서 존재하기 이전의 잠재적인 상태이다. 반면, '담화'란 화자가 언어행위를 실제로 구현하는 순간 구성되기 시작하는 표현(expression)을 가리키며, 이는 발화행위가 실현된 이후의 언어활동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화 단계에서의 언어활동은 더 이상 현상이 아니며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인도·유럽어에서 랑그는 문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단어는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한다(Guillaume, 2005:39-41). '잠재태(unité de puissance)'의 단어들은 실제 발화행위를 통해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후 담화 단계에서 표현 작용을 통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통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을 지나야만 '실현태(unité d'effet)'로서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signe)'를 구성하는 '기의(signifié)'와 '기표(signifiant)'는 랑그 차원에서의 잠재태와 담화 차원에서의 실현태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상태로 존재한다.[35] 그중에서도 특히 기의의 경우, 랑그 차

원에서 잠재태로 존재하는 기의를 가리켜 '랑그의미(signifié de langue)' 또는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라고 하고, 실제 언어행위를 통해 담화 차원에 이르러 실현태로 존재하는 기의를 가리켜 '담화의미(signifié de discours)' 또는 '실현의미(signifié d'effet)'라고 한다(Boone & Joly, 이하 BJ, 2003:350). 그리고 랑그 차원의 잠재의미와 담화 차원의 실현의미를 바탕으로 주어진 발화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의미를 가리켜 '의미효과(effet de sens)'라고 부른다(BJ, 2003:150). 이때 실현의미와 의미효과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현의미가 랑그 차원의 잠재의미가 담화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에 의해 포착된 결과에 해당한다면, 의미효과는 말하는 주체의 '담화 의도(visée de discours)'에 따라 실제 특정한 발화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특별한 의미에 해당한다(Guillaume, 2005:41).

3.1.2. 근원적 이원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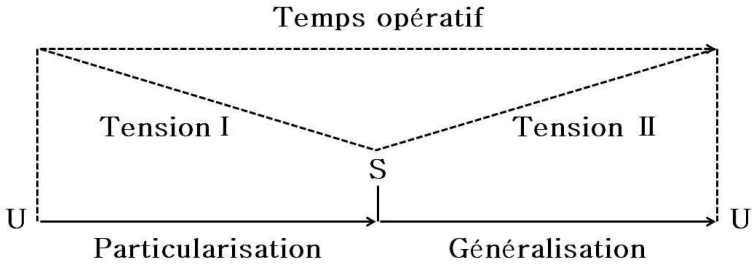
정신역학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넓음(보편)'에서 '좁음(특수)'으로 나아가는 닫히는 속성의 장력 Ⅰ과 그에 이어서 다시 '좁음(특수)'에서 '넓음(보편)'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열리는 속성의 장력 Ⅱ가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36] 이러한 두 장력(tension)의 연속적인

---

35) 본 연구에서 용어 signe, signifié, signifiant을 각각 '기호', '기의', '기표'라고 번역한 것은 Saussure의 전통적인 기호론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Guillaume은 이 세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를 Saussure와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즉, Saussure는 '기호(signe)'를 '의미'에 해당하는 '기의(signifié)'와 '형태'에 해당하는 '기표(signifiant)'의 결합으로 간주한 반면, Guillaume은 '기호(signifiant)'란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개념(signifié)'이 시각 또는 청각을 활용한 물리적인 '표지(signe)'를 통해 외재화된 결과라고 보았다(Joly & O'Kelly, 1990:52).

36) "Le mécanisme de puissance de la pensée, c'est l'addition (…) de deux tensions: une tension Ⅰ fermante, progressant du large à l'étroit, et une tension Ⅱ ouvrante *ad infinitum* progressant de l'étroit au large."(Guillaume, 1973:200)

결합을 가리켜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anire radical)'이라고 명명한다.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37]

위의 [그림 2]에서 양 끝에 위치한 기호 U는 '넓음'으로 표상되는 '보편성(universel)'을, 가운데에 위치한 기호 S는 '좁음'으로 표상되는 '개별성(singulier)'을 상징한다. 이때 장력 Ⅰ은 보편성(U)에서 개별성(S)으로 나아가는 바, 보편을 개별화하는 '특수화(particularisation)'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에 비해 장력 Ⅱ는 다시 개별성(S)에서 보편성(U)으로 나아가는 바, 개별을 보편화하는 '일반화(généralisation)' 운동이라고 불린다(Guillaume, 1987:11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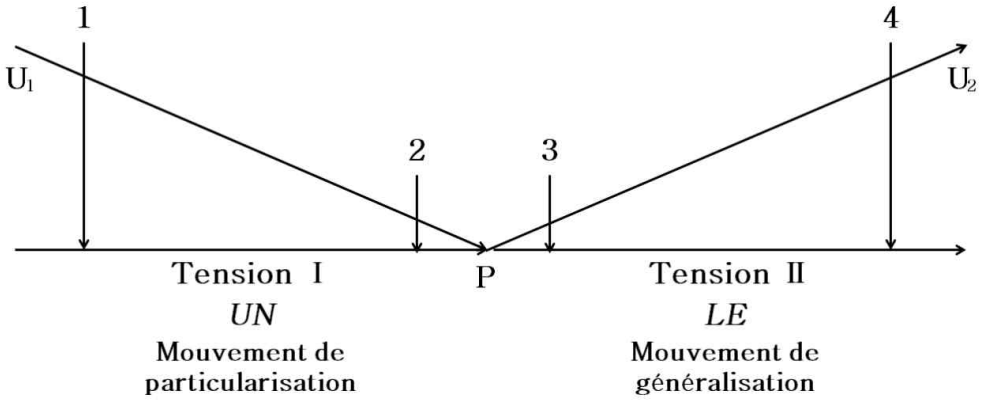
한편, Guillaume(1987:41)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러한 두 장력의 흐름에는 비록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정한 양의 시간이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신역학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의 기반에 자리함으로써 언어의 메커니즘에도 동일하게 개입하는 시간을 가리켜 '작용 시간(temps opératif)'이라고 부른다. 이를 '작용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제의 시간이 인간의 사고나 언어를 통해 발생하는 특정한 작용(opération)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37) Joly, A. & O'Kelly, D.(1990:92)

38) 장력 Ⅰ의 특수화 운동을 '개별화(singularisation)' 운동, 장력 Ⅱ의 일반화 운동을 '보편화(universalisation)'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랑스어에서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의 작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사(articl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부정관사(article indéfini)와 정관사(article défini)는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에 기반을 둔 하나의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먼저, 부정관사는 보편성(U_1)에서 개별성(S)으로 나아가는 특수화 장력 Ⅰ을 형성하며, 정관사는 개별성(S)에서 보편성(U_2)으로 나아가는 일반화 장력 Ⅱ를 형성한다(Monneret, 2003:100-101).[39] 다시 말해,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랑그 차원에서 각각 특수화 작용과 일반화 작용의 잠재의미를 지니며, 화자의 정신에 의해 이러한 잠재의미가 어느 시점에서 '포착(saisie)'되느냐에 따라 담화 차원에서의 실현의미와 구체적인 발화 상황 속에서의 의미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을 살펴보자.



[그림 3] 프랑스어 관사 체계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40]

앞의 [그림 3]에서 기호 1~4는 부정관사 un과 정관사 le의 장력에 대해 이루어진 각각의 포착을 가리킨다. 아래의 예문 (48a)~(48d)는 각각

39) 이때 U_1와 U_2는 근원적 이원장력의 양 끝에서 각각 장력 Ⅰ의 출발점으로서의 보편성의 영역과 장력 Ⅱ의 도착점으로서의 보편성의 영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40) Monneret, P.(2003:100)

의 포착 1~4에 해당하는 부정관사 un 또는 정관사 le의 서로 다른 의미 효과를 보여주는 문장이다.[41]

(48) a. Un enfant est toujours l'ouvrage de sa mère.
b. Un homme entra, qui avait l'air hagard.
c. L'homme entra, et s'assit au coin du feu.
d. L'homme est mortel.

(Monneret, 2003:100)

먼저, 예문 (48a)의 un은 부정관사 un의 특수화 장력 Ⅰ이 보편성(U_1)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인 초기에 포착된 결과('포착 1')로, 총괄적인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즉, 예문 (48a)에서 주어 명사구 un enfant은 '한 명의 아이와 어떤 다른 아이' 또는 '한 명의 아이와 모든 아이'를 나타내며, 이는 '아이'라는 집합 X가 있다고 할 때 X를 이루는 원소들 중 어느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집합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문 (48a)는 '아이란 언제나 그의 어머니의 작품이다'와 같이 해석된다.

한편, 예문 (48b)에서 un은 부정관사 un의 특수화 장력 Ⅰ이 개별성(S)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인 후기에 포착된 결과('포착 2')로, 개별적인 의미효과를 나타낸다. 즉, 예문 (48b) '험상궂은 얼굴의 어떤 한 남자가 들어왔다'에서 주어 명사구 un homme는 '남자'라는 집합 Y를 이루는 원소들 중 특정한 하나의 원소 y_1 '어떤 한 남자'가 추출된 결과이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관사 체계에서 정관사의 일반화 운동은 언제나 부정관사의 특수화 운동에 후행하는 바, 정관사는 그 자체로서 필연적으로 조응적인(anaphorique)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Monneret, 2003:131). 먼저, 예문 (48c)에서 le는 정관사 le의 일반화 장력 Ⅱ가 개별성(S)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인 초기에 포착된 결과('포착 3')로, 개별적인 의미효과

41) 예문 (48a)~(48d)에서 부정관사 un과 정관사 le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효과에 대한 설명은 박동열(2001:128-130)을 참조했다.

를 나타낸다. 즉, 예문 (48c)의 주어 명사구 l'homme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발화의 맥락 속에서 이미 언급된 특정한 한 남자'를 가리키며, 예문 (48c)는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난롯가에 앉았다'와 같이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예문 (48d)의 le는 정관사 le의 일반화 장력 Ⅱ가 보편성(U_2)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인 후기에 포착된 결과('포착 4')로, 총괄적인 의미효과를 나타낸다. 즉, 예문 (48d)의 주어 명사구 l'homme는 완전한 전체로서의 '모든 인간(tous les hommes)'을 가리키며, 따라서 예문 (48d)는 '인간은 죽는다'와 같이 해석된다.

이와 같이 관사 체계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은 프랑스어에서 관사가 명사의 확장성(extensit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정신역학론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경우 랑그에서 추상적인 잠재태로 존재하는 명사는 관사의 현동화 작용(actualisation)을 통해 담화에서 구체적인 실현태로 존재하게 된다. 즉, 명사를 한정하는 관사가 부정관사냐 아니면 정관사냐에 따라, 그리고 그 관사가 어느 시점에서 포착되는지에 따라, 해당 관사의 한정을 받는 명사의 확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관사의 특수화 작용은 보편을 개별화하는 바, 명사에 좁은 의미의 확장성을 부여하므로 반확장적(anti-extensif)이라고 하며, 정관사의 일반화 작용은 개별을 보편화하는 바, 명사에 넓은 의미의 확장성을 부여하므로 확장적(extensif)이라고 할 수 있다(박동열, 2001:126-130).

3.1.3. 의미차감

정신역학론에서는 인도·유럽어의 모든 단어는 '질료(matière)'와 '형태(forme)'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질료란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다른 단어들로부터 그 자신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인 내용을 가리키며, 형태란 해당 단어의 속성을 바탕으로 그 품사를 결정지어주는 형식적인 내용을 가리킨다(Guillaume, 1987:20-21). 이때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Guillaume(1984:73-86)은 어떤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 자체적인 내부에서 차감되는 과정을 '의미차감(subduction)'이라고 부르며, 의미차감의 과정을 내포하는 단어의 속성을 가리켜 '의미차감성(subductivité)'이라고 부른다.

의미차감은 그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외적 의미차감(subduction externe)'과 '내적 의미차감(subduction interne)'으로 구분된다.[42] 먼저, 아래의 [표 4]를 통해 외적 의미차감 작용의 사례를 살펴보자.

1. *être*
2. *avoir*
3. verbes puissanciels
(*pouvoir*, *devoir*, *vouloir*, *savoir*, *falloir*, *convenir*)
4. *aller*
5. *faire*
6. verbes particuliers d'action ou de passion
(*aimer*, *boire*, *manger*, *etc.*)

[표 4] 프랑스어 동사의 외적 의미차감 작용

42) 외적 의미차감은 '개방적 의미차감(subduction exotérique)', 내적 의미차감은 '비의적 의미차감(subduction ésotérique)'으로 불리기도 한다(BJ, 2003:407).

‘외적 의미차감’이란 단어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의미차감 작용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단어들 사이에 위계서열이 매겨지는 과정을 의미한다(Guillaume, 1987:73). 앞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 동사는 동사 être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행위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념적인 연속체를 구성한다. 먼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주체가 존재해야 가능하므로, 존재(existence)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être가 그 외 다른 모든 동사들에 선행한다. 두 번째로는 소유(possession)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avoir가,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나 감정에 앞서 능력(puissance), 의무(obligation), 의지(volonté), 역량(aptitude), 필요성(nécessité), 적절성(convenance) 등을 나타내는 pouvoir, devoir, vouloir, savoir, falloir, convenir 등의 양태 동사들이 위치한다. 이어서 양태적인 특성을 띠는 동시에 구체적인 의미 값을 지니는 동사 aller와 faire가 위치하며, 마지막으로는 aimer, boire, manger 등과 같은 어휘 동사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외적 의미차감 작용에서 선행하는 동사는 후행하는 동사의 전제를 이룬다.

반대로, ‘내적 의미차감’은 어떤 하나의 단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어떤 단어의 질료가 본래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점점 축소되어 결국에는 모두 비워진 상태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Guillaume, 1987:75). 아래의 예문 (49)를 살펴보자.

(49) a. Pierre **a** de l’argent.

b. Il **a** l’honneur. / J’**ai** faim. / Tu **as** à partir.

c. Pierre **a** marché.

d. Je marcher**ai**. / Je marcher**ais**.

(Moignet, 1981:267-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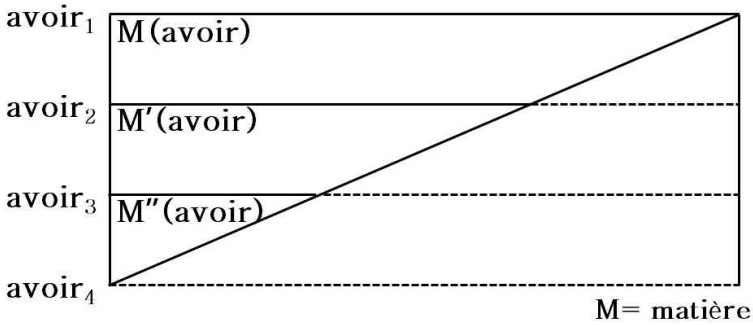
대부분의 프랑스어 동사에는 각자의 고유한 내적 의미차감 작용이 내포되어 있다(Guillaume, 1987:75-77).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동사 avoir의 경우를 살펴보자.[43] 동사 avoir는 총 네 단계에 걸쳐서 내적 의미차감 작용을 이룬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의 예문 (49a)와 (49b), (49c), (49d)에서 사용된 avoir를 각각 차례대로 $avoir_1$, $avoir_2$, $avoir_3$, $avoir_4$라고 하자. 먼저 예문 (49a)의 $avoir_1$는 동사 avoir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소유'의 의미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완전한 어휘 동사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voir_1$는 언제나 직접목적보어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예문 (49b)의 $avoir_2$는 '소유'의 의미가 일부 차감되어 동사 avoir가 관용구 표현의 일부분을 이루는 상태다. $avoir_1$에서 $avoir_2$로 나아가며 줄어든 의미는 관용구 표현을 이루는 다른 구성성분에 의해 채워진다. Moignet(1981:268)는 $avoir_2$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유형은 'avoir l'honneur/l'avantage/l'air *etc.*'와 같이 동사와 목적보어의 통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 두 번째는 'avoir chaud/conscience/envie/faim/peur/pitié/recours/soif/souvenir etc.'와 같이 첫 번째 유형에 비해 동사와 목적보어가 서로 더욱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경우, 세 번째는 'avoir à + 부정법 동사' 구문이 해당된다.

세 번째로, 예문 (49c)의 $avoir_3$는 동사 avoir가 본래 어휘 동사로서 지니던 '소유'의 의미는 거의 잃은 채 다른 동사의 시제 표현을 위한 문법적인 장치로서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예문 (49d)의 $avoir_4$는 동사 avoir가 프랑스어에서 현재 또는 반과거 시제의 미래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소 -ai/as/a/ons/ez/ont와 -ais/ais/ait/ions/iez/aient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avoir_4$는 서법이나 시제, 고유의 어간(av-)을 지니지 않으므로, 더 이상 하나의 동사로 간주되기 어렵다. 이

43) 동사 avoir의 내적 의미차감 작용에 대한 설명은 Moignet(1981:267-269)를 참고했다.

러한 동사 avoir의 내적 의미차감 작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동사 avoir의 내적 의미차감[44]

$avoir_1$와 $avoir_2$, $avoir_3$, $avoir_4$는 각각 하나의 동일한 동사 avoir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인 경우, 관용구 표현의 요소로 사용된 경우, 시제 표현을 위한 조동사로 사용된 경우, 미래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기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사 avoir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소유'의 의미를 'M(avoir)'이라고 표시할 때, 위의 [그림 4]는 $avoir_1$에서 그 의미가 M(avoir)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 $avoir_2$와 $avoir_3$로 나아가면서 그 크기가 M'(avoir)과 M"(avoir)으로 줄어들며, 끝내 $avoir_4$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voir_1$와 $avoir_2$, $avoir_3$, $avoir_4$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로축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 값이 차감되어 비어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44) 이는 김소정(2014:32)의 도식을 수정하여 활용한 것이다.

3.2. Martin의 논리의미론

Martin은 Guillaume의 정신역학론에서 언어를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분석한 것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 이론으로서 '논리의미론(logicosémantique)'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의미론의 여러 개념들 가운데 '믿음영역(univers de croyance)'과 '가능세계(monde possible)'를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는 바, NE의 정신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2.1. 믿음영역

퍼지 논리(logique floue)에 기반을 두는 논리의미론에서는 명제란 진리조건에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참(V)과 거짓(F) 사이의 무한한 진릿값으로 ±V와 ±F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Martin, 1992:26-30). 가령, "Paul est heureux" 또는 "Paul est malheureux"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만일, 실제로 Paul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위 두 문장의 진릿값은 참 또는 거짓이 아닌 '다소 참(plus ou moins vrai)' 또는 '다소 거짓(plus ou moins faux)'이 된다. 한편, "Paul est jeune"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젊다고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개별 화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참 또는 거짓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진릿값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5]

---

[45] Martin(1992:28-30)에 따르면, 언어의 대표적인 퍼지 현상으로는 jeune, heureux와 같이 발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점증적 술어(prédicat gradable)'가 있다. 또한, dans un sens, d'une certaine manière 등과 같은 문장 부사구나 assez, plutôt, relativement 등의 강도 부사의 사용 또한 퍼지 진릿값을 야기한다.

Martin(1992:37-38)에 따르면, “언어적 진릿값의 속성은 주체가 책임을 지는 진릿값”[46]이다. 화자는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화하는데, 어떤 발화가 화자 A에게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화자들에게도 참인 것은 아니다. 논리의미론에서는 이를 발화의 진릿값이 해당 발화를 산출하는 화자의 ‘믿음영역(univers de croyance, 이하 U)’ 안에서만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성은 그가 진실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배제되며, 설사 화자가 잘못 생각하여 그의 믿음이 실제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발화는 ‘적어도 그의 믿음영역 안에서는’ 참이라고 할 수 있다.

Martin(1992)이 고안한 논리의미론적 개념인 ‘믿음영역’은 “화자가 자신이 발화하는 순간에 참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참이라고 믿게 하고자 하는 명제들의 무한집합”[47]을 가리키며, 편의상 ‘영역(univer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믿음영역은 해당 영역을 책임지는 화자가 소유하고 있는 교양이나 정보, 획득한 지식 또는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따라 다르게 구축된다. 가령, 명제 《L’atome est formé d’un noyau et d’électrons(원자는 한 개의 핵과 여러 개의 전자로 구성된다)》는 화자의 지식에 따라 다른 정도의 진릿값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화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믿음영역을 지니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Martin, 1992:38).

Martin(1992:39-40)은 믿음영역을 ‘잠재영역(univers virtuel)’과 ‘현실영역(univers actuel)’으로 구분한다.[48] 먼저, 잠재영역이란 “화자가 결정

---

46) “Le propre de la vérité langagière (…) est une vérité prise en charge par un sujet.”(Martin, 1992:37)

47) “(…) on appellera “univers de croyance” ou “univers” l’ensemble indéfini des propositions que le locuteur, au moment où il s’exprime, tient pour vraies ou qu’il veut accréditer comme telles.”(Martin, 1992:38)

48) ‘잠재영역’과 ‘현실영역’은 ‘잠재적 믿음영역(univers de croyance virtuel)’과 ‘현실적 믿음영역(univers de croyance actuel)’의 줄임말이다.

가능한, 즉 화자가 진리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49]을 의미하고, 현실영역이란 "화자가 실제로 진릿값을 부여하는 명제들의 집합"[50]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현실영역의 명제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진릿값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지지만, 잠재영역의 명제에 대해서는 진릿값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그것이 참이 될 수 있는 진리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영역은 잠재영역의 부분집합을 이룬다(박옥숙, 1999:479-480).

한편, 화자는 담화를 통해 자신의 믿음영역(U) 안에서 또 하나의 다른 믿음영역을 인식론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Martin, 1992:47). 이때 그 다른 믿음영역이 화자의 담화 속에서 재현된 것을 가리켜 '영역상(image d'univers, 이하 U_i)'이라고 한다. 즉, 영역상(U_i)이란 믿음영역(U)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다른 믿음영역이 믿음영역(U) 안에서 상(像)을 맺고 있는 것으로, 믿음영역(U)에 종속된 양상을 띤다(박옥숙, 1999:482). 후기 논리의미론에 들어서야 비교적 명확해진 영역상(U_i)의 개념은 모든 인식론적인 양태를 수용하여 초기 논리의미론의 '반사실영역(anti-univers, 이하 $\overline{U}$)'과 '타영역(hétéro-univers, 이하 U')', '인식영역(épi-univers, 이하 U^e)'의 개념을 포괄하게 되었다(박옥숙, 1999:473-477).[51]

먼저, 반사실영역($\overline{U}$)이란 "비록 발화 순간에는 거짓이지만, 참일 수도 있었거나 또는 참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명제들의 집합"[52]을 가리키

---

49) "On appellera *univers virtuel* d'un locuteur donné à un moment déterminé du temps l'ensemble des propositions par lui décidables, c'est-à-dire dont il est en mesure de spécifier les conditions de vérité."(Martin, 1992:40)

50) "On appellera *univers actuel* d'un locuteur donné à un moment déterminé du temps l'ensemble des propositions auxquelles ce locuteur attribue effectivement une valeur de vérité."(Martin, 1992:40)

51) 본 연구에서 Martin의 저서들 중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었던 *Pour une logique du sens*(1992)에서는 '반사실영역'과 '타영역', '인식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박옥숙(1999)을 간접적으로 참고했다.

52) "On appellera *anti-univers* l'ensemble des propostions qui, quoique fausse en t_o, auraient pu être vraies ou que l'on imagine telles, ce qui revient à dire qu'il

며, 이는 곧 그러한 명제들이 참이 되는 '반사실세계(monde contre-factuel)'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건절 "Si Napoléon vivait encore, (…)"에 대하여, 명제 p 《나폴레옹은 아직 살아있다》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반사실영역($\overline{U}$)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 논리의미론에 들어서면서 '반사실영역'의 개념은 '반사실세계'의 개념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박옥숙, 1999:474).[53] 즉, 위의 명제 p의 경우, 이는 반사실영역($\overline{U}$)에서 참인 것이 아니라, 믿음영역이 포함하는 수많은 가능세계들 중 하나인 반사실세계에서 참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다음으로, 타영역(U')이란 "화자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믿음을 옮길 때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발화자(énonciateur)가 참이라고 간주하는 명제들의 집합"을 가리킨다.[54] 이때 발화자는 문장 "Il affirme/pense/s'imagine que p"에서와 같이 화자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완전한 타인이거나, 문장 "Je pensais/m'imaginais que p"에서와 같이 발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의 화자가 될 수 있다(Martin, 1992: 47-48).

마지막으로, 인식영역(U^e)의 경우를 살펴보자. 박옥숙(1999:475)에 따르면, 초기 논리의미론에서 다른 종류의 영역들은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었던 것과 달리, 인식영역(U^e)은 단순히 인식론적인 양태들에 대한 총칭으로 시사될 뿐이었으며 이는 후기 논리의미론에서 영역상(U_i)의 개념을 정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다만, Martin(1992:48)에서 영역상의 개념이 포괄하게 된 '인식론적인 양태'를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유추해보건대, 인식영역(U^e)이란 문장 "Je crois que p"와 같이 화자가 자기 자신의

---

existe des mondes contrefactuels où elles sont vraies."(박옥숙, 1999:475, 재인용)

53) '반사실세계'의 개념은 이어지는 3.2.2.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54) "On appellera *hétéro-univers* l'ensemble des propositions que tient pour vraies celui dont le locuteur rapporte le dire, la pensée ou la croyance, c'est-à-dire "énonciateur"."(박옥숙, 1999:481, 재인용)

현실영역을 묘사하거나 “Il est certain/vraisemblable/plausible que p” 등의 양태적 표현을 통해 명제 p의 인식론적인 양태를 익명으로 논할 때 발생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2. 가능세계

17세기 독일 철학자 Leibniz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된 ‘가능세계(monde possible, 이하 M)’의 개념은 20세기 논리학에서 필연성, 가능성, 우연성 등의 양상(modalit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가능세계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 이외에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세계들의 집합에 속하는 하나의 세계를 가리킨다(손병홍, 2004:37-52). 가능세계의 개념을 명제에 적용시켜보면, 예를 들어,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문장 “Il est possible que p(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Il est vraisemblable que p(p는 있을 법한 일이다)”는 p가 대부분의 가능세계에서는 참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장 “Il est plausible que p(p는 당연하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참임을 의미한다(장승일, 2016:41-42).

화자의 믿음영역(U)은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한한 가능세계들을 내포하며, 각각의 가능세계에서는 특정 발화 순간과 관련하여 일련의 명제들이 일관성을 이룬다(Martin, 1992:46-47). 믿음영역(U)이 내포하는 무한한 가능세계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의 가능세계가 바로 실제세계(monde réel, 이하 m_0)이며, 실제세계(m_0)를 제외한 나머지 가능세계는 ‘잠재세계(monde potentiel, 이하 m)’와 ‘반사실세계(monde contre-factuel, 이하 $\overline{m}$)’로 구분된다(Martin, 1992:46-47).

먼저, 잠재세계(m)란 실제세계의 명제와 모순된 명제를 단 하나도 갖지 않는 가능세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실제세계에서 '아마도 참 또는 거짓(possiblement vrai ou faux)'의 진릿값을 지니는 명제 p는 동일한 믿음영역에 속하는 어떤 잠재세계에서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Il est possible que Pierre soit revenu"에 대하여, 화자의 믿음영역 안에는 명제 p 《Pierre가 돌아왔다》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로서 'Pierre가 돌아온 세계'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반사실세계($\overline{m}$)란 실제세계의 명제와 모순된 명제를 적어도 하나 갖는 가능세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실제세계에서 거짓 또는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명제 p는 반사실세계에서 각각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예를 들어, 조건절 "Si Pierre avait réussi, (…)"는 '(실제세계에서는) Pierre가 성공하지 않았음'을 내포하는 바, 이에 화자의 믿음영역은 'Pierre가 성공한' 가능세계로 실제세계와 모순되는 반사실세계를 내포한다.[55]

---

55) Martin(1992:47)에 따르면, 실제세계(m_0)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명제 p에 대하여, 반사실세계($\overline{m}$)는 p가 거짓이지만 참일 수도 있었던 '우연적 반사실세계(monde accidentellement contrefactuel)'와 p는 단순한 상상의 결과이므로 거짓일뿐더러 과거에도 결코 참일 수 없었던 '본질적 반사실세계(monde essentiellement contrefactuel)'로 구분된다. 가령, 과거에 대한 조건절 "Si Pierre avait réussi, (…)"에 대하여, '실제로 Pierre는 성공하지 않았으나 성공할 수도 있었으므로', 'Pierre가 성공한 세계'는 우연적 반사실세계에 해당한다. 반면, 현재에 대한 조건절 "Si Napoléon était au pouvoir, (…)"에 대하여, '실제로 Napoléon은 죽었기 때문에 현재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Napoléon이 통치하는 세계'는 본질적 반사실세계에 해당한다.

4. 형태 NE의 정신체계(psychosystème)

4.1. NE의 부정화 운동

본 절에서는 정신역학론적 관점에서 NE의 부정화 운동을 제시한 Moignet(1981)의 연구와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 허사 ne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정신역학론의 틀로 확장시켜 설명한 Martin(1984)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NE의 정신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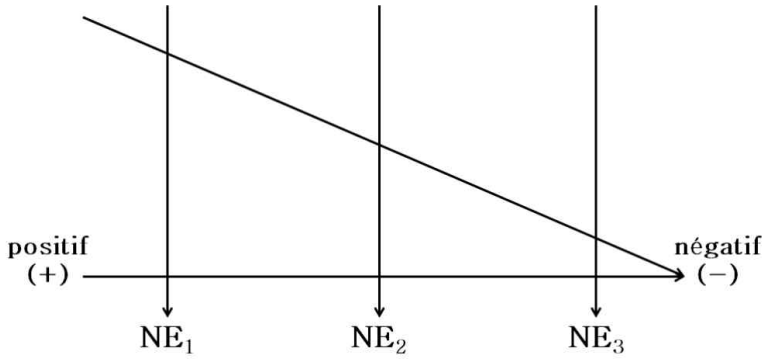
4.1.1. Moignet(1981)의 분석

전통적으로 긍정문과 부정문은 단순히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부정의 발화는 언제나 긍정의 발화를 전제한다(Ritz, 1993:67, 재인용). 가령, “Il n’y a pas de pain sur la table”와 같은 부정문은 ‘책상 위에 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인식을 전제할 때에야 가능하다.[56]

---

[56] Martin(1988:2-3)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인간의 인식에서 긍정이 전(前)을 부정이 후(後)를 이룬다는 통설을 뒷받침한다. 첫째, 프랑스어 부정어 중에는 부정(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최소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화사와 같은 긍정어를 어원으로 갖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ucun과 rien은 본래 부정(indéfini)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 aliquid unum과 rem에서 각각 파생됐다. 둘째, 형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과 부정 중에서 문법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언제나 부정이다. 따라서 언어의 유형을 막론하고 부정은 언제나 긍정보다 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부정 명제 ~p를 단언하는 것은 긍정 명제 p를 예상하거나 가정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을 묘사할 때, 긍정문 “Il était

정신역학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의 부정 형태 NE의 기저에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흐르는 '부정화 운동(mouvement de négativation)'이 자리한다고 본다. 정신역학론에 따르면, NE의 부정화 운동은 담화 차원에 이르러 인간의 정신에 의해 여러 다른 시점에서 포착됨으로써, 부정의 미세한 뉘앙스에서부터 완전한 부정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Moignet(1981:205-207)는 NE의 부정화 운동에서 발생 가능한 포착을 크게 '초기 포착(saisie précoce)'과 '중기 포착(saisie médiane)', '후기 포착(saisie tardive)'으로 구분한다. 아래의 [그림 5]를 살펴보자.



[그림 5] Moignet(1981)의 NE의 부정화 운동[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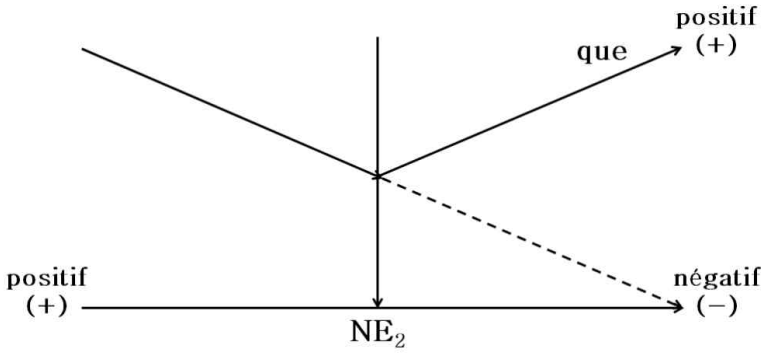
먼저, 긍정의 영역과 가까운 초기에 포착된 NE_1는 '허사 ne'에 해당한다. 전통 문법에서는 허사 ne를 단순히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는 요소로서 화자의 선택에 따라 문장에 임의적으로 출현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신역학론적 관점에 따르면, 허사 ne의 NE_1는 NE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부정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두려움'의 의미를 나

petit"가 아닌 부정문 "Il n'était pas grand"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화자의 머릿속에 적어도 '그 사람이 키가 컸다면'과 같은 반사실적인 긍정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57) Moignet, G.(1981:205)

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 허사 ne는 '두려움'의 감정이 내포하는 '바라보는 사고(idée regardante)'[58]에 내재된 부정성(négativité)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긍정의 극과 부정의 극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포착된 NE_2는 NE가 접속사 que와 결합함으로써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ne ~ que의 '제한의 ne'에 해당한다. 이때 NE의 부정화 운동은 접속사 que가 이끄는 일반화 장력을 통해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제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Moignet, 1981:205). 이를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의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ne ~ que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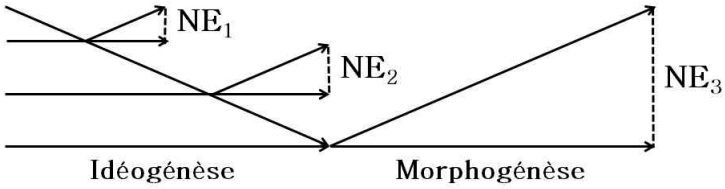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NE의 부정화 운동이 부정의 영역과 가까운 후기에 포착된 결과인 NE_3는 NE가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부정부사 ne의 독립적 용법, 즉 '부정의 ne'에 해당한다. 그런데 NE의 부정화 운동에 있어서 부정의 ne는 부정소 ne ~ pas에서의 NE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에서 포착됨으로써 명백하게 구분된다(Guillaume, 1982a:133).

58) 정신역학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랑그 차원의 '바라보는 사고'에서 담화 차원의 '바라본 사고(idée regardée)'로 흐른다. 전자의 사고는 언어의 존재 조건으로서 랑그 체계에 속하는 단어들에 의해 형성되며, 후자의 사고는 담화 차원에서 실제 문장으로 발현된 단어들에 의해 형성된다(BJ, 2003:223-224).

59) ibid., p. 205.

정신역학론에서는 NE가 혼자 쓰여서는 주관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다가 보조사 pas와의 결합을 통해 완전히 객관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60]

한편, Moignet(1981:206)는 NE가 NE_1, NE_2, NE_3와 같이 서로 다른 정도의 부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것을 아래의 [그림 7]과 같이 정신역학론의 '내적 의미차감(subduction interne)'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림 7] Moignet(1981)의 NE의 내적 의미차감[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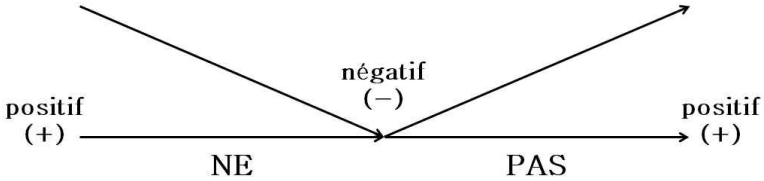
위의 [그림 7]에서 수직으로 표현된 점선은 NE의 부정화 운동이 각각 초기와 중기, 후기에 포착된 결과인 NE_1와 NE_2, NE_3가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의 크기를 나타내며, 이때 '허사 ne'의 NE_1에서 '제한의 ne'의 NE_2, '부정의 ne'의 NE_3로 나아가면서 부정의 의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NE는 NE_3에서 가득 차 있는 부정의 의미 값이 NE_2와 NE_1에서는 조금씩 빠져나가 있는 내적 의미차감 작용을 이룬다.

---

60) WZ(1973:44-47)와 마찬가지로, Guillaume(1982a:133)은 부정의 ne에 의한 부정과 부정소 ne ~ pas에 의한 부정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한다.
(a) Je **n**'ose le faire.
(b) Je **n**'ose **pas** le faire.
위의 예문 (a)는 발화자가 일종의 회피 전략을 취함으로써 관습적인 예의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예문 (b)는 단순히 '그렇게 할 대담함이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61) ibid., p. 206.

한편, Moignet(1981:206)는 프랑스어의 대표적인 표준 부정소 ne ~ pas에 대하여, NE의 특수화 작용과 보조사 pas의 일반화 작용으로 이루어진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을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8] ne ~ pas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62]

먼저, NE의 장력은 앞의 [그림 5]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나아가는 부정화 운동, 즉 긍정을 부정화하는 특수화 작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조사 pas의 장력은 NE의 부정이 다시 긍정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을 갖도록 하는, 즉 부정을 긍정화하는 일반화 작용에 해당한다.[63] 따라서 NE의 부정이 '긍정의 부정화(négativation du positif)' 작용 또는 '내재적 부정(négation immanente)'이라고 불린다면, 이에 보조사 pas가 더해진 ne ~ pas의 부정은 '부정의 긍정화(positivation du négatif)' 작용 또는 NE의 부정이 다시 긍정의 보편성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보다 강력한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초월적 부정(négation transcendante)'이라고 불린다(Moignet, 1981:206).

그렇다면 pas가 아닌 jamais, personne, rien 등의 다른 보조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의 예문 (50)을 살펴보자.

---

62) ibid., p. 206.

63) 앞서 2.1.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단어 pas는 본래 긍정의 의미 값만을 나타냈다가 고대와 중세 프랑스어를 기점으로 NE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작용을 뒷받침하는 부정 보조사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50) a. A-t-on **jamais** vu pareille chose ?

b. J'ai travaillé pour **rien**.

위의 예문 (50a)에서 단어 jamais는 '이전에', '그 언젠가' 등과 같이 긍정의 의미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 (50a)는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던가?'와 같이 해석된다. 또한, 예문 (50b)에서 단어 rien은 형태 NE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 그 자체로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아무 것도')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 (50b)는 '나는 헛되이 일했다'와 같이 해석된다. 현대 프랑스어에서 일반적으로 완전한 부정 보조사로서 기능하는 단어 jamais와 rien은 NE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NE 없이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여서도 예문 (50a)와 같이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예문 (50b)와 같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쓰임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Moignet(1981:207)는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의 보조사는 일반적으로 담화 상에서 NE의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정의 개별성 영역에서 출발하여 긍정의 보편성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반화 작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NE의 특수화 작용과 마찬가지로, 보조사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의 일반화 작용 또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포착되느냐에 따라 긍정의 의미 값에서부터 부정의 의미 값까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64] 따라서 Moignet(1981:206)는 앞의

---

[64] 단어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에 대한 Moignet(1981)의 이러한 관점은 언어의 공시태와 통시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비록 옛날 프랑스어에서는 위 단어들이 긍정의 의미 값을 나타냈으나,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NE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쓰임이 보편적이다. 즉, 위의 예문 (50a)에서의 jamais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긍정 표현인 déjà나 un jour 등과 완전히 동일한 긍정의 의미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앞서 2.1.에서 Ashby(1981)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부정의 의

[그림 8]의 ne ~ pas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에서 단어 pas의 일반화 작용은 aucun(e)/aucunement, guère, jamais, nul(le)/nulle part, personne, plus, rien 등의 여러 다른 보조사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65]

이와 같이 Moignet(1981)는 NE의 다양한 용법을 그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 포착됨으로써 야기되는 결과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첫째, 앞의 [그림 5]에서 NE_3는 NE의 부정화 운동이 부정의 극에 완전히 도달하기 이전인 후기에 포착된 것으로 그려진 것과 달리, [그림 7]에서 NE_3는 그 운동이 부정의 극까지 완전히 도달한 것으로 그려져 있어 NE의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기술하는 데 있어 철저하지 못했다. 둘째, 위의 [그림 7]에서 '허사 ne'의 NE_1와 '제한의 ne'의 NE_2가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 값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다. 셋째, NE가 담화 차원에서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는 NE가 어떤 보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보이므로, 모든 보조사가 [그림 8]의 pas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의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Moigent(1981:206)의 도식 [그림 5]와 [그림 7]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여 수정하고자 한다.

미작용의 중심이 NE에서 pas 등의 보조사로 점차 이동하기 때문에, 위 단어들이 오늘날의 화자에게도 여전히 긍정의 의미 값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학론을 논의의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확장된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5)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Moignet(1981:206)는 'ne ~ ni … ni …'에서 접속사 ni가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 또한 pas의 일반화 작용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1.2. Martin(1984)의 분석

Martin(1984)은 DP(1930)가 제안한 NE의 '불일치' 메커니즘을 논리의 미론의 '가능세계(monde possible)' 개념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정신역학론의 틀로 통합시켜 설명했다. 앞서 2.3.에서 살펴보았듯이, DP(1930)가 NE의 근원적 의미로서 주장한 '불일치'의 개념은 허사 ne가 지니는 의미론적인 모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에 Martin(1984:107)은 허사 ne란 "명제 p가 환기되는 세계, 즉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세계와 이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즉 명제 p가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세계 사이의 모순을 나타내는 기호"[66]라는 가설을 주장한다. 즉, 허사 ne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가 두 개의 구별되는 가능세계에서 각각 참과 거짓으로 모순되는 진릿값을 지닐 때 문장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사 craindre의 보어절의 경우를 살펴보자.

(51) Je <u>crains qu</u>'il <u>ne</u> vienne.

Martin(1984:106)에 따르면, 위의 예문 (51)에서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가 온다》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 M_1과 M_2를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은 '그가 오는 세계'로, 이곳에서 p는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그리고 M_1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세계로 '그가 오지 않는' 가능세계 M_2가 암시되는데, 이곳에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이때 명제 p는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에서는 참의 진릿값을, 이를 대체하여

66) "le signe d'une contradiction entre le monde où p est évoqué, où p est vrai, et un monde alternatif, où p est faux."(Martin, 1984:107)

이차적으로 환기되는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면서 모순을 보이므로, 해당 명제를 포함하는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해당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즉 명제 p가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2가 반사실세계($\overline{m}$)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Martin, 1984:107-108). 아래의 예문 (52)를 살펴보자.

(52) Je <u>regrette qu</u>'il vienne.

앞의 예문 (51) 'Je <u>crains qu</u>'il <u>ne</u> vienne'의 경우, 주어 Je는 '그가 올 수도 있는 잠정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명제 p 《그가 온다》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가능세계 M_1과 M_2 모두 잠재세계(m)에 해당한다. 반면, 위의 예문 (52)의 경우, 주어 Je는 '실제로 그가 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것이므로, 명제 p 《그가 온다》에 대해 일차적으로 환기되어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1은 '그가 오는' 실제세계(m_0)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세계로서 p가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2는 '그가 오지 않는' 반사실세계($\overline{m}$)로서, 오로지 실제 사실에 반대하여 조건적인 가정에 의해서만 환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 (52)의 명제 p에 대해서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 M_1과 M_2를 떠올릴 수 있으나, 이때 M_2는 M_1에 의해 무효화되는 반사실세계($\overline{m}$)이므로, 술어 regretter의 보어절에서는 허사 ne가 출현하지 않는다(Martin, 1984:107).

한편, Martin(1984:111)은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에서 출현하는 허사 ne에 대해서는 명제 p가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을 반사실세계($\overline{m}$)로 간주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가능세계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가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래의 예문 (53)을 살펴보자.

(53) Il s'en est fallu de peu qu'il ne le fa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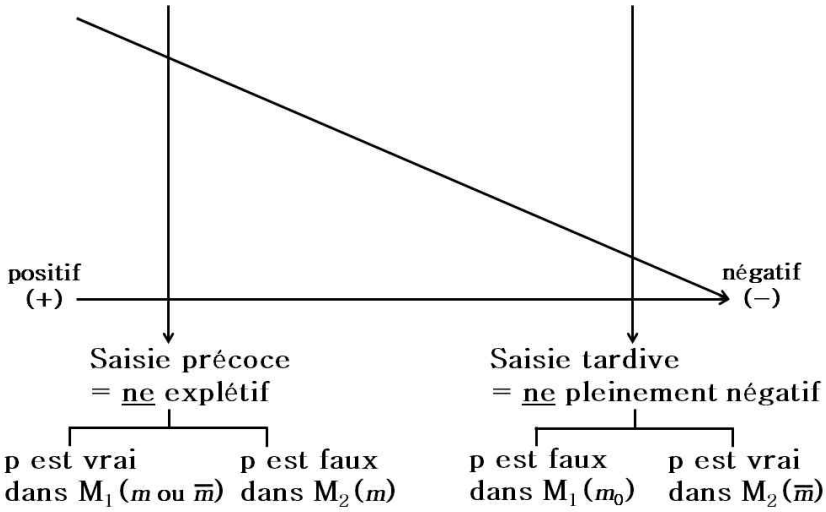
위의 예문 (53)에서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가 그것을 한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은 '그가 그것을 하는 세계'로, 그곳에서 p는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그런데 이때 위 예문은 '그가 그것을 할 뻔했다'와 같이 해석되는 바, 실제로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능세계 M_1은 실제 사실에 반대하여 조건적인 가정에 의해서만 환기되는 반사실세계($\overline{m}$)에 해당한다. 그리고 M_1을 대체하여 암시되는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세계 M_2는 '그가 그것을 하지 않는' 실제세계(m_0)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67] 이와 같이 Martin (1984)이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 허사 ne에 대해 제안한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형태 NE의 용법	허사 ne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가능세계	$M_1(=m\ ou\ \overline{m})$	$M_2(\neq\overline{m})$
명제 p의 진릿값	참	거짓

[표 5] 허사 ne에 대한 Martin(1984)의 가설

67)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마찬가지로 허사 ne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절이 부정의 맥락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의 명제 p가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2는 p가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이 속하는 믿음영역(U)과는 또 하나의 다른 믿음영역에 속한다고 간주함으로써, 반사실세계($\overline{m}$)가 아니라 잠재세계(m)가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Martin(1984)의 가설을 받아들이되, NE의 메커니즘을 더욱 체계화하여 정리하기 위해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4.3.1.4.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한편, Martin(1984:117-120)은 자신의 논리의미론적 가설을 정신역학론에서 NE의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부정화 운동의 도식에 대입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Martin(1984:117)은 정신역학론에서 허사 ne란 NE가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바라보는 사고(idée regardante)'에 의해 그 부정화 운동의 초기에 포착됨으로써 최소한의 부정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만, 그 '바라보는 사고'를 작동시키는 동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허사 ne에 대한 자신의 가설이 정신역학론에서 말하는 '바라보는 사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래의 [그림 9]의 도식을 제시한다.



[그림 9] Martin(1984)의 NE의 부정화 운동[68]

위의 [그림 9]에 따르면, NE가 부정화 운동의 초기에 포착된 결과인 허사 ne의 경우,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는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에서 참의 진릿값을, 이차적으로 암시되는 가능세계 M_2에서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그러나 후기 포착의 결과로서 완전한 부정의 의미

68) Martin, R.(1984:119)

값을 나타내는 NE의 경우, 명제 p는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M_1에서 거짓의 진릿값을, 이차적으로 암시되는 M_2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때 후자의 경우,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2는 언제나 반사실세계($\overline{m}$)이며, p가 부정되어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 M_1은 언제나 실제세계(m_0)이다. 아래의 예문 (54)를 살펴보자.

(54) Il <u>ne</u> cesse de travailler.

위의 예문 (54)에서 NE는 부정 부사 ne가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의 ne'의 용법에 해당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는 일하기를 멈춘다》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 M_1과 M_2를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 NE는 부정 부사 ne로서 명제를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먼저 '그가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세계'가 M_1로 환기된다. 이때 '실제로 그는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M_1은 실제세계(m_0)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명제 p는 NE를 통해 부정되어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M_1에 이어서 환기되는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세계 M_2는 '그가 일하기를 멈추는 세계'에 해당하며, 이는 실제 사실에 반대하여 조건적인 가정에 의해서만 환기되는 반사실세계($\overline{m}$)로, 이곳에서 p는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즉, NE가 부정 부사 ne로 쓰여 실제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는 실제세계($M_1=m_0$)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그리고 반사실세계($M_2=\overline{m}$)에서는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Martin(1984)의 기존의 가설에 더하면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형태 NE의 용법	허사 ne		부정 부사 ne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가능세계	$M_1(=m \ ou \ \overline{m})$	$M_2(\neq \overline{m})$	$M_1(=m_0)$	$M_2(=\overline{m})$
p의 진릿값	참	거짓	거짓	참

[표 6] 형태 NE에 대한 Martin(1984)의 가설

앞의 [그림 9]와 위의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artin(1984)은 NE가 허사 ne로 쓰였느냐 또는 부정 부사 ne로 쓰였느냐에 따라,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가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가능세계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NE의 메커니즘을 단순히 '허사 ne'와 '부정 부사 ne'라는 상위 용법만으로 분류하여 나타낼 뿐, 실제 프랑스어 발화에서 NE가 지니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 용법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특정 구문에서 허사 ne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문에 따라 표현되는 부정의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며, 부정 부사 ne 또한 어떤 보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제한의 의미에서부터 완전한 부정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의 메커니즘에 대한 Moignet(1981)의 정신역학론적 연구와 Martin(1984)의 논리의미론적 연구가 NE의 복잡한 쓰임을 비교적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4.2. NE의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

4.2.1. NE의 메커니즘

우리는 앞서 2.2.에서 프랑스어에서 NE가 특정 구문에서 다른 보조사 없이 혼자 쓰여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허사 ne'의 용법에서부터 문장에서 혼자 또는 다른 보조사와 함께 쓰여 명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정하는 '부정 부사 ne'의 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을 지님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예문 (55)와 (56)을 살펴보자.

(55) a. Il m'a rappelé le rendez-vous de peur que je ne l'oublie.

b. Il tarde à Paul qu'on ne l'autorise à s'inscrire.

(Muller, 1978:79)

c. Ils prennent des mesures avant qu'il ne soit trop tard.

d. Paul boit plus de vin que Max ne boit d'eau.

(Muller, 1991:431)

(56) a. L'égoiste ne cherche que son profit.

b. Elle n'a guère changé.

c. Il n'y a plus de place dans la salle.

d. On n'a pas le temps de s'ennuyer.

e. Je ne suis jamais en ret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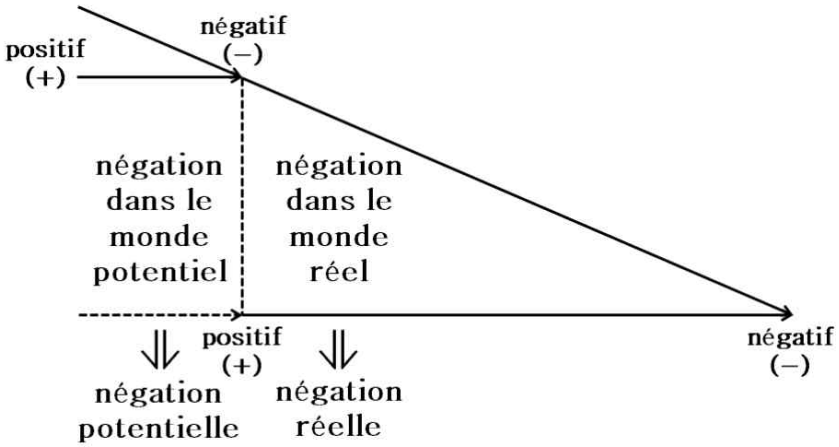
f. Personne ne le croit.

g. Rien ne se passe.

먼저, 예문 (55a)~(55d)는 각각 앞서 2.2.2.에서 살펴본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의 네 가지 하위 유형에 해당한다. 예문 (55a)의 NE는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의 한 유형으로서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peur의 보어절에서 사용된 허사 ne에 해당한다. 허사 ne의 출현을 허용하는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에는 이외에도 '예방', '금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이 있다. 다음으로, 예문 (55b)의 NE는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의 보어절에서 사용된 허사 ne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비인칭 구문 Il ne tient pas à ~ que와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에서도 허사 ne가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예문 (55c)의 NE는 상황 종속절 avant que 구문에서 사용된 허사 ne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와 sans que에서도 허사 ne가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예문 (55d)의 NE는 부사 plus를 통해 우등 비교관계를 나타내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사용된 허사 ne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문 (56a)~(56g)는 NE가 부정 부사 ne로 쓰여 que, plus, guère,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의 보조사와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보여준다. 먼저, 예문 (56a)에서 NE는 접속사 que와 함께 쓰여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제한의 ne'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문 (56b)~(56g)에서 NE는 각각 plus, guère, pas, jamais, personne, rien과 함께 쓰여 문장의 명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부정하는 의미작용을 한다.

이와 같은 NE의 용법들에 대하여, 우리는 Moignet(1981)가 제시한 NE의 부정화 운동 도식과 Martin(1984)이 허사 ne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한 가능세계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 [그림 10]과 같은 NE의 부정화 운동 도식으로 그 용법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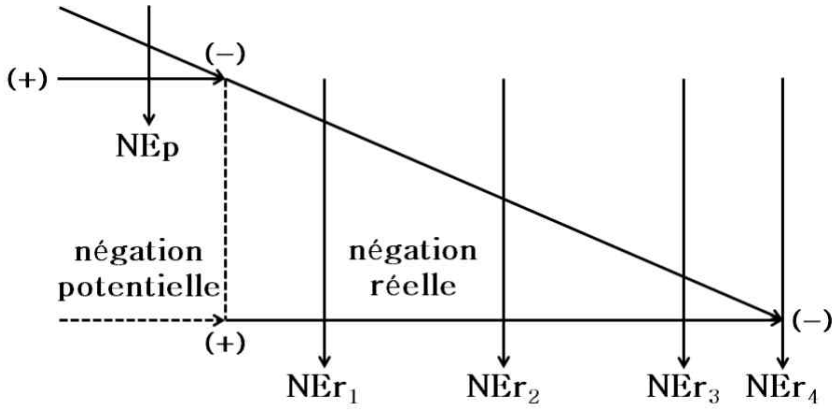


[그림 10]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부정화 운동

[그림 10]은 NE가 '랑그(langue)' 차원에서 지니는 '부정(négation)'의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를 '잠재세계에서의 부정(négation dans le monde potentiel)'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négation dans le monde réel)'으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긍정의 극에서 부정의 극으로 흐르는 NE의 부정화 운동은 가능세계의 하위 유형인 '잠재세계(monde potentiel)'와 '실제세계(monde réel)'의 차원으로 구분되고, 이 두 차원에서 각각 잠재적인 성질과 실제적인 성질의 부정의 의미가 표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담화(discours)' 차원에 이르러서 각각 '잠재적 부정(négation potentielle)'과 '실제적 부정(négation réelle)'의 '실현의미(signifié d'effet)'로 발현된다.[69]

69) [그림 10]에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이 실제세계에서의 긍정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신역학론에서는 인간의 사고를 기본적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흐르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와는 모순되게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이 실제세계에서의 '긍정'에 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Martin(1984:118)은 랑그 차원의 '개념적 순서(chronologie notionnelle)'에서는 '가능(possible)'의 개념이 '실제(ce qui est)'의 개념에 선행하므로, NE의 잠재의미에 있어서도 가능의 영역인 '잠재세계' 차원에서의 긍정과 부정은 모두 실제의 영역인 '실제세계' 차원에 선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우리는 앞의 예문 (55)~(56)에서 살펴본 NE의 다양한 용법들은 [그림 10]에서 제시된 NE의 부정화 운동 상에서 인간의 정신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포착된 결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시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NE의 정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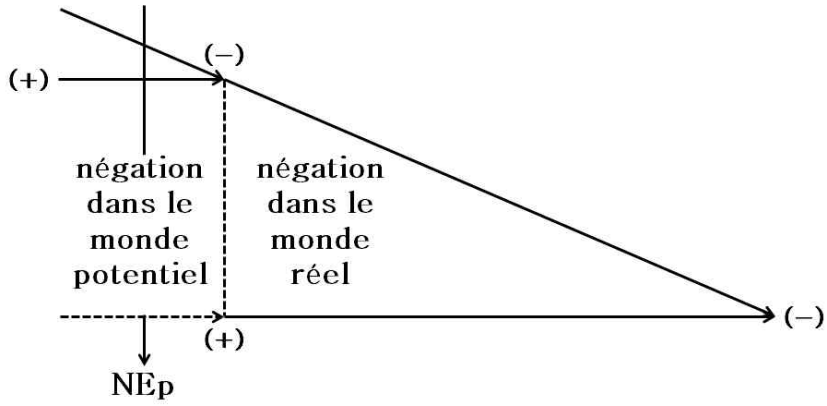
먼저,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NE는 담화 차원에서 NE가 실질적으로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는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 중 예문 (55a)와 (55b), (55c)로 각각 대표되는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과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상황 종속절'에서 사용되는 허사 ne에 해당한다. 허사 ne의 의미작용은 통상적으로 '허사적 부정(négation explétive)'이라고 불리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실현의미를 '잠재적 부정(NEp)'이라고 새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NE의 '부정'의 잠재의미가 잠재세계의 차원에서 포착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NE는 일반적으로 담화 차원에서 NE가 실질적으로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 부사 ne의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E의 실현의미를 '잠재적 부정'과

대조시키기 위하여 '실제적 부정(NEr)'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NE의 실제적 부정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보조사와 결합하는지 또는 어떤 구문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우리는 '실제적 부정'의 의미를 '배제적 부정(NEr_1)'과 '상관적 부정(NEr_2)', '불완전 부정(NEr_3)', '완전 부정(NEr_4)'의 네 가지 하위 의미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각각 앞서 살펴본 예문 (56a)에서 ne ~ que의 NE와 예문 (55d)의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의 NE, 예문 (56b)과 (56c)에서 ne ~ guère/plus의 NE, 예문 (56d)~(56g)에서 ne ~ pas/jamais/personne/rien의 NE에 해당한다.

4.2.2.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NE의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잠재세계의 차원에서 포착된 결과인 NEp는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그림 12]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NEp의 포착

NE가 랑그 차원에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그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가능세계 M_1과 M_2 가운데 이차적으로 암시되는 가능세계 M_2에서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됨을 의미한다. 이때 M_2는 잠재세계(m)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프랑스어 발화에서 NE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에 대해 실제적으로 부정의 의미작용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발화 맥락 속에서 부정과 관련된 미세한 뉘앙스를 발생시키는 '허사 ne'의 용법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E의 잠재의미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가능세계	M_1	M_2
	m_1	m_2
명제 p의 진릿값	참	거짓
형태 NE의 용법	허사 ne	

[표 7] NE의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전통 문법에서는 허사 ne가 문장에서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불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쓰였다고 하여, '남용의 ne(*ne* abusif)', '중복의 ne(*ne* pléonastique)', '잉여적 ne(*ne* redondant)' 등으로 불러 왔다(Fournier, 2004:48). 그러나 허사 ne를 이렇게 소위 '비어 있는 기호(signe vide)'로 간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기호인 NE가 부정의 의미 값을 지니는 부정 부사 ne의 경우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허사 ne의 경우로 완전히 상반되는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이어짐으로써 의미론적으로 중대한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에 Martin(1984:103)은 인간의 정교한 언어 체계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 기호'와 같은 거추장한 요소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 허사 ne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가능세계에서 각각 참과 거짓으로 모순되는 진릿값을 가질 때 출현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예방'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로 총 아홉 가지 유형의 허사 ne 구문에 자신의 가설이 적용됨을 보였다.[70]

NE가 랑그 차원에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허사 ne 구문 중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의 하위 유형 가운데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55a) Il m'a rappelé le rendez-vous <u>de peur que</u> je <u>ne</u> l'oubl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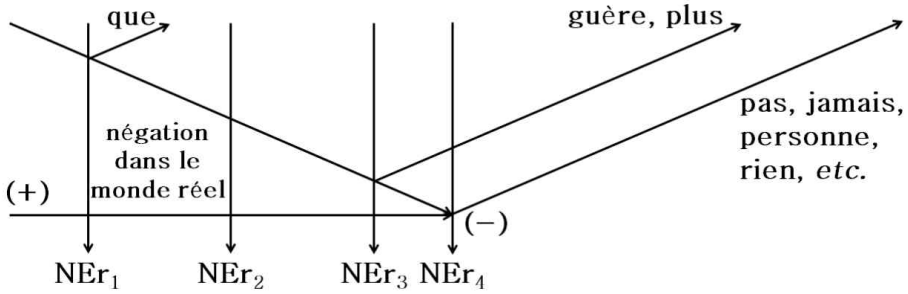
위의 예문 (55a)에서 명사 peur의 보어절에서 NE는 허사 ne로 쓰여 명제 p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다》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로서는 내가 약속을 잊어버릴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명사 peur에 의해 형성되는 '두려움'의 믿음영역(U)은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 M_1과 M_2로서,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는' 잠재세계 m_1과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잠재세계 m_2로 두 개의 서로

70) Martin(1984:109-114)이 제안한 허사 ne 구문의 목록에는 앞서 2.2.2.의 [표 3]에서 정리한 총 열한 가지 유형의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 가운데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의 경우가 빠져 있다. Martin(1984)에서는 '금지'의 의미 유형 구문이 목록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구문들과는 달리 허사 ne가 거의 항상 출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 구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설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으므로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사용되는 NE는 허사 ne가 아니라 단순한 통사적 일치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다른 잠재세계를 내포한다. 이때 명제 p는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잠재세계 m_1에서는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고, 이차적으로 암시되는 잠재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4.2.3.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NE의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실제세계의 차원에서 포착된 결과인 NEr_1, NEr_2, NEr_3, NEr_4는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그림 13]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NEr의 포착

NE가 랑그 차원에서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그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가능세계 M_1과 M_2 가운데, 실제세계(m_0)에 해당하는 전자의 가능세계 M_1에서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프랑스어 발화에서 NE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 p에 대해 실제적으로 부정의 의미작용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 ne'의 용법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E의 잠재의미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명제 p에 대해	M_1	M_2
환기되는 두 가능세계	m_0	$\overline{m}$
명제 p의 진릿값	거짓	참
형태 NE의 용법	부정 부사 ne	

[표 8] NE의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이 경우, NE는 부정 부사 ne로서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 (56d)를 통해 프랑스어의 표준 부정소 ne ~ pas를 예로 들어, NE가 랑그 차원에서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살펴보자.

(56d) Je <u>ne</u> parle <u>pas</u> français.

예문 (56d)에서 NE는 보조사 pas와 결합하여 술어 parler를 부정한다. 이 경우, 우리는 명제 p 《나는 프랑스어를 한다》에 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세계 M_1과 M_2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NE가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 값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내가 프랑스어를 하지 않는' 가능세계 M_1이 환기되는데, 이때 '실제로 나는 프랑스어를 하지 않으므로' 이는 실제세계(m_0)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명제 p는 부정소 ne ~ pas를 통해 부정됨으로써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이에 이어서 실제세계(m_0)를 대체하는 또 다른 가능세계 M_2로 '내가 프랑스어를 하는 세계'인 반사실세계($\overline{m}$)가 암시된다. 이곳에서 명제 p는 긍정됨으로써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이렇게 NE가 랑그 차원에서 지니는 잠재의미를 '잠재세계에서의 부정'과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NE의 잠재의미	잠재세계에서의 부정		실제세계에서의 부정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가능세계	m	m	m_0	$\overline{m}$
명제 p의 진릿값	참	거짓	거짓	참
형태 NE의 용법	허사 ne		부정 부사 ne	

[표 9] NE의 잠재세계/실제세계에서의 부정

4.3. NE의 실현의미(signifié d'effet)

본 절에서는 앞의 [그림 11]에서 살펴본 NE의 정신체계에서 NE의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잠재세계의 차원과 실제세계의 차원에서 각각 포착됨에 따라 담화 차원에서 발현되는 '잠재적 부정(négation potentielle)'과 '실제적 부정(négation réelle)'의 실현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제적 부정'의 실현의미의 경우, 인간의 정신이 NE의 부정화 운동을 포착하는 시점이 초기와 중기, 후기, 말기일 때 발화에서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의미는 각각 '배제적 부정(négation exceptive, NEr_1)'과 '상관적 부정(négation corrélative, NEr_2)', '불완전 부정(négation incomplète, NEr_3)', '완전 부정(négation complète, NEr_4)'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 부정'의 하위 의미들을 '의미차감' 개념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4.3.1. 잠재적 부정

NE의 정신체계에서 NEp 지점에서 포착된 NE는 담화 차원에서 '잠재적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는 그에 대해 환기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잠재세계 가운데 두 번째로 환기되는 잠재세계 m_2에서 부정된다. 이는 '두려움', '예방', '금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명사/형용사의 보어절과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에서의 허사 ne에 해당된다.[71]

---

71) 본 연구에서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의 NE 또한 Martin(1984)이 제안한 아홉 가지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에서의 NE와 마찬가지로, 랑그 차원에서 '잠재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함으로써 Martin(1984)의 가설이 프랑

4.3.1.1.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먼저, 동사/명사/형용사의 보어절로서 '두려움', '예방',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의 경우를 살펴보자.[72]

(55a) Il m'a rappelé le rendez-vous **de peur que** je **ne** l'oublie.

(57) a. Il faut **empêcher que** cela **ne** se reproduise.
b. Pierre **a défendu que** Marie **ne** s'en aille. (Wilmet, 1997:511)

위의 예문 (55a)와 (57a), (57b)에서 보어절을 이끄는 단어에 의해 표현되는 '두려움', '예방', '금지'의 의미 값은 보어절의 명제 p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명제 p의 실현을 '두려워하거나', '예방하거나', '금지한다고' 해서 명제 p가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NE를 포함하는 명제 p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두 개의 가능세계 M_1과 M_2는 각각 '두려움', '예방', '금지'의 믿음영역(U)에 속하는 두 개의 잠재세계 m_1과 m_2일 수밖에 없다. 4.2.2.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문 (55a)의 경우, NE를 포함하는 명제 p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다》는 '두려움'의 믿음영역(U)에 내포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잠재세계 가운데, 이차적으로 암시되는 잠재세계 m_2, 즉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세계에서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스어 허사 ne 구문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편,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의 경우, Martin(1984)을 포함한 여러 다른 학자들이 해당 구문은 다른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과는 통사적으로 차이를 지닌다고 간주하는 점에 근거하여, 해당 구문에서의 NE는 랑그 차원에서 '실제세계에서의 부정'의 의미를 지니며 담화 차원에서 허사 ne가 아닌 부정 부사 ne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72)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은 4.3.1.4.에서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과 함께 '이중 부정 구문'으로 제시하여 살펴볼 것이다.

예문 (57a)에서도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 일은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방'의 믿음영역(U)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잠재세계 m_1과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잠재세계 m_2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잠재세계를 내포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잠재세계 m_1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며, 잠재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예문 (57b)에서도 마찬가지로, 'Pierre는 Marie가 떠나지 못하도록 금지할 뿐, 실제로 Marie는 떠나거나 떠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지'의 믿음영역(U)은 'Marie가 떠나는' 잠재세계 m_1과 'Marie가 떠나지 않는' 잠재세계 m_2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잠재세계를 내포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 《Marie가 떠나다》는 잠재세계 m_1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며, 잠재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4.3.1.2.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와 Il ne tient pas à ~ que의 보어절에서도 주절 술어 tarder와 ne pas tenir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는 보어절의 명제 p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73]

(58) a. <u>Il tarde à</u> Paul <u>qu</u>'on <u>ne</u> l'autorise à s'inscrire.
(Muller, 1978:79)

b. <u>Il ne tient pas à</u> moi <u>qu</u>'il <u>ne</u> le fasse. (Martin, 1984:111)

---

73)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은 4.3.1.4.에서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함께 '이중 부정 구문'으로 제시하여 살펴볼 것이다.

Martin(1984:111)에 따르면, 예문 (58a)에서 주절의 술어 tarder로 표현되는 '~하기를 몹시 기다림'의 감정은 '기다리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동반한다. 즉,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의 보어절의 경우 또한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마찬가지로, '보어절의 명제 p를 몹시 기다리는 것일 뿐, 실제로 명제 p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절의 믿음영역(U)은 '명제 p가 실현되는' 잠재세계 m_1과 '명제 p가 실현되지 않는' 잠재세계 m_2를 내포한다. 따라서 예문 (58a)의 경우, NE를 포함하는 명제 p 《Paul의 가입이 허가되다》는 'Paul의 가입이 허가되는' 잠재세계 m_1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지만, 'Paul의 가입이 허가되지 않는' 잠재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그리고 예문 (58b)에서도 주절의 술어 ne pas tenir로 표현되는 '~에 달려 있지 않음'의 의미는 명제 p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보어절의 명제 p가 ~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일 뿐, 실제로 명제 p는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절의 믿음영역(U)은 '명제 p가 실현되는' 잠재세계 m_1과 '명제 p가 실현되지 않는' 잠재세계 m_2를 내포한다. 따라서 예문 (58b)의 경우 또한,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가 그것을 하다》는 '그가 그것을 하는' 잠재세계 m_1에서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지만, '그가 그것을 하지 않는' 잠재세계 m_2에서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4.3.1.3. 상황 종속절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과 비인칭 구문의 보어절과는 달리, 상황 종속절은 하나의 독립절이 통사적으로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상황 종속절을 포함하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종속절의 명제 p와 주절의 명제 q로 두 개의 명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때 명제 p와 q가 각각 참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긍정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잠재세계 m_1과 m_2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종속절의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1과 주절의 명제 q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2가 각각 환기될 때, 상황 접속사구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 값으로 인해 두 절은 필연적으로 모순의 의미 관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명제 p는 명제 q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2에서 반드시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아래의 예문 (59a)~(59c)를 살펴보자.

(59) a. Ils prennent des mesures, <u>avant qu</u>'il <u>ne</u> soit trop tard.
b. Elle s'est fait virer, <u>à moins que</u> je <u>ne</u> me trompe.
c. L'enquête est finie <u>sans que</u> le coupable **ne** soit démasqué.

위의 예문 (59a)에서 상황 종속절 avant que 구문의 경우, 종속절의 명제 p 《때가 너무 늦다》와 주절의 명제 q 《그들이 조치를 취한다》로 두 개의 명제를 내포한다. 이에 우리는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1로 '때가 너무 늦은 세계'와 명제 q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2로 '그들이 조치를 취한 세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때 예문 (59a)에서 두 명제를 상황 종속절 avant que로 연결하면, '때가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조치를 취하므로', 즉 '그들이 조치를 취한' 잠재세계 m_2에서 '때가 너무 늦지 않으므로', 명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한편,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 구문의 예문 (59b) 또한 종속절의 명제 p 《내가 착각하다》와 주절의 명제 q 《그녀는 해고당했다》로 두

개의 명제를 내포한다. 이에 우리는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1로 '내가 착각한 세계'와 명제 q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2로 '그녀가 해고당한 세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때 예문 (59b)에서 두 명제를 상황 종속절 à moins que로 연결하면, '내가 착각하지 않는 한 그녀는 해고당했으므로', 즉 '그녀가 해고당한' 잠재세계 m_2에서 '나는 착각하지 않았으므로', 명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마지막으로, 상황 종속절 sans que 구문의 경우를 보여주는 예문 (59c)도 마찬가지로, 종속절의 명제 p 《범인이 밝혀지다》와 주절의 명제 q 《수사가 끝났다》로 두 개의 명제를 내포한다. 그리고 이에 각각의 명제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세계로서 '범인이 밝혀진' 잠재세계 m_1과 '수사가 끝난' 잠재세계 m_2가 환기된다. 이때 예문 (59c)에서 두 명제를 상황 종속절 sans que로 연결하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끝났으므로', 즉 '수사가 끝난' 잠재세계 m_2에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명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님으로써 부정된다.

4.3.1.4. 이중 부정 구문

우리는 동사/형용사/명사의 보어절 유형 가운데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에서의 NE는 앞에서 살펴본 구문들에서의 NE와는 다른 양상의 '잠재적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먼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서 허사 ne가 쓰이기 위해서는 그 주절은 반드시 부정문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통사적인 특징은 술어가 나타내는 '부정/의심'의 의미와 더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하지/의심하지 않음'과 같은 '이중 부정(double négation)'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비

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모자라다'라는 부정의 뉘앙스를 띠는 술어 s'en falloir와 '거의 ~하지 않음'과 같이 부정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peu가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의 부족하지/모자라지 않음'과 같은 '이중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프랑스어 허사 ne 구문 중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과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을 '이중 부정 구문'으로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위 두 구문에서의 NE는 앞에서 설명한 구문들에서의 NE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잠재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앞의 구문들의 경우, NE를 포함하는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잠재세계 m_1과 m_2는 주절 술어가 지배하는 하나의 동일한 믿음영역(U)에 속했다면, 이중 부정 구문의 경우, 주절이 지니는 '이중 부정'의 의미로 인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믿음영역 U_1과 U_2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에 대해서는 이 두 믿음영역에 각각 속하는 잠재세계 m_1과 m_2가 환기된다.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 명제 p가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1과 거짓의 진릿값을 지니는 잠재세계 m_2가 하나의 동일한 믿음영역(U)에 속했다면, 후자의 경우, 명제 p는 어떤 하나의 믿음영역 U_1에 속하는 잠재세계 m_1에서 긍정됨으로써 참의 진릿값을 지니지만, U_1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다른 믿음영역 U_2에 속하는 잠재세계 m_2에서는 부정됨으로써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74] 먼저,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의 경우로 다음의 예문 (60)을 살펴보자.

---

[74] Martin(1984:110)도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에 대하여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명제 p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가능세계가 각각 서로 다른 믿음영역 U_1과 U_2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Martin(1984:111)은 다른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에서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일차적으로 환기되는 가능세계 M_1이 잠재세계(m)인 것과 달리,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의 경우에는 M_1이 잠재세계가 아닌 반사실세계($\overline{m}$)가 된다고 간주할 뿐, 해당 구문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믿음영역이 환기된다고 보지 않는다.

(60) Pierre <u>ne nie pas qu</u>'il <u>ne</u> l'ait dit. (Martin, 1984:110)

예문 (60)에서 주절 술어의 의미 값 '부인하지 않음(ne pas nier)'은 '부인할 수도 있었음("Il aurait pu se faire que Pierre nie que p")'의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예문 (60)은 'Pierre가 보어절의 명제 p 《그가 그것을 말했다》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영역 U_1과 'Pierre가 명제 p를 부인하는' 또 하나의 다른 믿음영역 U_2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먼저, U_1에서 'Pierre가 명제 p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명제 p가 긍정됨으로써 참의 진릿값을 지니는 세계, 즉 '그가 그것을 말한' 잠재세계 m_1이 환기된다.[75] 한편, U_2에서는 'Pierre가 명제 p를 부인하므로', 이에 속하는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않은' 잠재세계 m_2에서 명제 p는 부정되어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Martin, 1984:110).[76]

다음은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의 경우이다.

(61) <u>Il s'en est fallu de peu qu</u>'il <u>ne</u> le fasse. (Martin, 1984:111)

위의 예문 (61)에서 '거의 부족하지/모자라지 않음', 즉 '거의 ~할 뻔함'이라는 주절 술어의 의미 값의 영향을 받아, NE를 포함하는 명제 p 《그가 그것을 한다》에 대하여, '명제 p가 실현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믿음영역 U_1과 그에 대응하여 '명제 p가 실현되기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판단하는("Il aurait pu s'en falloir de beaucoup que p")' 믿음영역 U_2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믿음영역이 환기된다. 첫 번째 믿음영역 U_1에서는 '그가 그것을 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므로', 이에 속하

75) Martin(1992)의 논리의미론에 따르면, 어떤 명제의 진릿값은 해당 주체의 믿음영역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그러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Pierre는 명제 p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믿음영역(U_1)에서 명제 p는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76) 잠재세계 m_2에서 또한, 실제 그러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Pierre는 명제 p를 부인하므로', 그러한 믿음영역(U_2)에서 명제 p는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는 '그가 그것을 하는' 잠재세계 m_1에서 명제 p는 긍정됨으로써 참의 진릿값을 지닌다. 반면, 두 번째 믿음영역 U_2에서는 '그가 그것을 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므로', 이에 속하는 '그가 그것을 하지 않는' 잠재세계 m_2에서 명제 p는 부정되어 거짓의 진릿값을 지닌다.

이처럼 NE가 '잠재적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명제 p가 그에 대해 환기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잠재세계 m_1과 m_2 가운데 두 번째로 환기되는 m_2에서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열한 가지의 허사 ne 구문들 중에서 불평등 비교구문의 보어절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열 가지 구문들에서의 허사 ne의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문의 유형에 따라 명제 p가 긍정되는 잠재세계 m_1과 부정되는 잠재세계 m_2가 하나의 동일한 믿음영역(U)에 속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믿음영역 U_1과 U_2로 분리되어 속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래의 [표 10]은 NE가 '잠재적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열 가지 유형의 허사 ne 구문을 믿음영역과 잠재세계의 관계 양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NE의 실현의미	잠재적 부정			
믿음영역과 잠재세계	U		U_1	U_2
	m_1	m_2	m_1	m_2
명제 p의 진릿값	참	거짓	참	거짓
허사 ne 구문	유형 1		유형 2	

1) 유형 1: '두려움', '예방',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비인칭 구문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의 보어절,
상황 종속절 avant que, à moins que, sans que

2) 유형 2 (이중 부정 구문)
- '부정/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보어절
- 비인칭 구문 Il s'en faut de peu que의 보어절

[표 10] NE의 잠재적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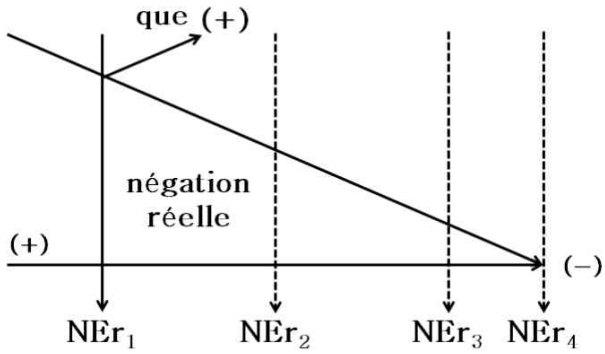
4.3.2. 실제적 부정

NE의 정신체계에서 NEr_1과 NEr_2, NEr_3, NEr_4 지점에서 포착된 NE는 담화 차원에서 '실제적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 NE를 포함하는 명제 p는 그에 대해 환기되는 실제세계(m_0)와 반사실세계($\overline{m}$) 가운데 전자의 실제세계(m_0)에서 부정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적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NE에 대하여 우리는 실제 발화에서 NE가 사용된 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NEr_1은 NE가 접속사 que와 결합함으로써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고, NEr_2는 흔히 허사 ne 구문으로 알려진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NE가 다른 보조사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NEr_3은 NE가 보조사 guère, plus와 결합하여 불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NEr_4는 NE가 보조사 pas, jamais, personne, rien 등과 결합하여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4.3.2.1. 배제적 부정

'배제적 부정'의 NEr_1은 NE의 부정화 운동 중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긍정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인 초기에 포착된 결과이다. 부정 부사 ne가 접속사 que와 결합하여 ne ~ que의 형태를 이루는 '제한의 ne'의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4] 배제적 부정 NEr_1의 포착

위의 [그림 14]와 Moignet(1981)의 NE의 부정화 운동의 도식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배제적 부정'의 NEr_1의 포착이 이루어질 때, NE의 부정화 운동이 표상하는 특수화 장력은 접속사 que가 이끄는 일반화 장력을 통해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NEr_1의 의미를 '배제적(exceptive)'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ne ~ que의 제한의 의미가 적용되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문장의 의미에서 배제됨으로써 부정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 (56a)를 살펴보자.

(56a) L'égoiste <u>ne</u> cherche <u>que</u> son profit.

위의 예문 (56a)에서 ne ~ que의 제한은 술어 chercher의 직접목적보어로 기능하는 명사구 son profit에 적용된다. 이때 '이기주의자가 추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익(son profit)'을 제외한 '나머지(autre chose)'는 문장의 의미에서 배제됨으로써 부정된다. 그래서 예문 (56a)는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고 해석되고, 문장 "L'égoiste <u>ne</u> cherche <u>pas autre chose que</u> son profit(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로 치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제적 부정'의 NEr_1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로 하여금

표면적으로는 긍정의 의미적 특성을 띠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3.2.2. 상관적 부정

전통적으로 비교구문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개의 사건 또는 상태 간의 '상관관계(corrélation)'를 나타낸다고 하여, 상관관계 구문(construction corrélative comparative)으로 분류된다(Muller, 2013: 20). 즉, 비교 상관관계 구문은 그것이 표현하는 비교 관계가 동등이든 불평등이든 간에 상관없이, aussi, plus, moins 등의 비교 표지를 포함하는 주절과 접속사 que가 이끄는 종속절이 상관관계를 맺는 통사 구조를 지닌다.[77] 이러한 관점에서 불평등 비교구문은 두 개의 독립절이 plus, moins 등과 같이 비교 표지로서 기능하는 부사와 접속사 que를 통해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는 구조이며, 이때 주절에서 비교 표지로 기능하는 부사는 두 절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참조점(pôle de référence)의 역할을 수행한다(Muller, 1991:426-434).

(55d) Paul boit **plus** de vin **que** Max **ne** boit d'eau.

(Muller, 1991:431)

예문 (55d)의 불평등 비교구문은 첫 번째 독립절 "Paul은 **일정한 양의** 와인을 마신다(Paul boit **une certaine quantité** de vin)"가 주절로, 두 번째 독립절 "Max는 **그만큼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Max **ne** boit **pas** **cette quantité** d'eau)"가 종속절로 상관관계를 지니는 비교 상관관

77) 비교구문으로 표현되는 비교관계는 '동등(égalité)'과 '불평등(inégalité)'으로 나뉠 수 있다. 불평등 비교관계는 세부적으로 plus, meilleur, mieux 등으로 표현되는 '우등(supériorité)'과 moins, moindre, pire 등으로 표현되는 '열등(infériorité)', autre, différent 등으로 표현되는 '차등(disparité)'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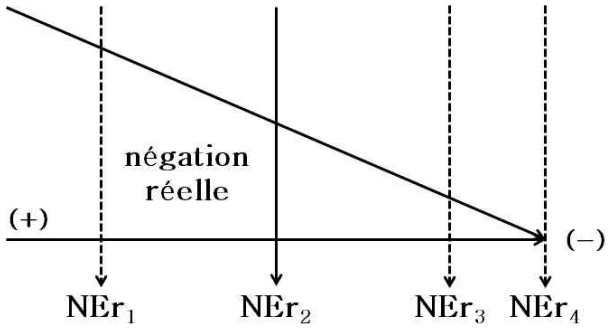
계 구문이다. 이때 두 번째 절의 명사구 cette quantité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에서 마치 관계절의 선행사처럼 기능하는 명사구 une certaine quantité를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절에서 명제 p 《Max는 그만큼의 물을 마신다》를 부정하는 부정소 ne ~ pas는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보조사 pas 없이 NE가 혼자 쓰인 형태로 축약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비교구문이 상관관계 구조를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문의 종속절에서 다른 보조사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NE는 단순히 부정의 연산자로 기능하지 않는 허사 ne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이는 NE가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상관관계 안에서의 부정의 의미 값을 표현하는 경우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서 2.2.2.4.에서 Wilmet(1991:512-513)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이 다른 유형의 허사 ne 구문들과는 통사적으로 다른 특징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불평등 비교구문의 기저에는 부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설명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78]

이러한 관점에서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출현하는 NE는 형태 NE가 그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긍정의 극과 부정의 극 사이의 중간에서 포착된 결과로 간주하며, 그 의미를 '상관적(corrélative)'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를 NE의 부정화 운동 도식에 표시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

78) Molina, J. V.(2006:46)



[그림 15] 상관적 부정 NEr_2의 포착

'상관적 부정'의 NEr_2는 하나의 불평등비교급 구문을 이루는 두 개의 독립절 가운데 두 번째 절에 내포된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해당 문장은 부정의 의미 값과 긍정의 의미 값을 각각 동일한 양으로 동시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62)를 살펴보자.

(62) Elle parle coréen <u>moins</u> bien <u>qu</u>'il <u>ne</u> parle français.
= Elle parle bien coréen <u>à tel degré</u>;
Il <u>ne</u> parle <u>pas</u> français <u>à ce degré</u>.

위의 예문 (62)는 첫 번째 독립절 "그녀는 <u>어떤 정도로</u> 한국어를 잘 한다"가 주절로, 두 번째 독립절 "그는 <u>그 정도로</u> 프랑스어를 잘 하지 <u>않는다</u>"가 종속절로 쓰여 상관관계 구조를 지니는 열등비교 구문이다. 이때 예문 (62)의 종속절에서 단독으로 출현하는 NE는 두 번째 절에 함의된 부정의 의미 값 '그는 그 정도로 프랑스어를 잘 하지 않음'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첫 번째 절의 긍정의 의미 값으로서 '그녀는 어떤 정도로 한국어를 잘 함'의 의미를 동일한 크기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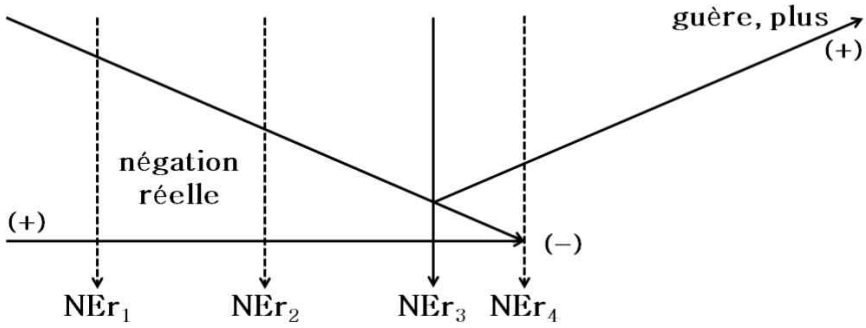
다음으로, 차등비교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63) Il a réagi autrement que je ne l'aurais voulu.
= Il a réagi de telle façon;
Je n'aurais pas voulu qu'il réagisse de cette façon.

위의 예문 (63)은 첫 번째 독립절 "그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다"가 주절로, 두 번째 독립절 "나는 그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했다"가 종속절로 쓰여 상관관계 구조를 지니는 차등비교 구문이다. 예문 (63) 또한 앞서 살펴본 다른 유형의 불평등 비교구문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의 독립절과 부정의 독립절이 이루는 상관관계를 내포하는 바, 종속절에서 사용된 NE는 부정의 의미 값 '나는 그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함'과 긍정의 의미 값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음'을 각각 동일한 크기로 나타낸다.

4.3.2.3. 불완전 부정

'불완전 부정'의 NEr_3은 NE의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정의 영역에 완전히 도달하기 전인 후기에 포착된 결과이다. 이는 부정 부사 ne가 부사 guère와 결합하여 양 또는 빈도, 정도가 '많거나 크지 않음', 즉 '거의 없거나 적음'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부사 plus와 결합하여 술어의 진행상을 부정함으로써 '과거의 상태 또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16] 불완전 부정 NEr_3의 포착

위의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 부정'의 NEr_3의 포착이 이루어질 때, NE의 부정화 운동이 표상하는 특수화 장력은 부사 guère와 plus가 이끄는 일반화 장력을 통해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때 '불완전 부정'의 NEr_3에 내재된 부정의 의미 값은 일반화 장력이 함의하는 부정의 긍정화 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이러한 NEr_3의 의미를 '불완전(incomplète)'하다고 칭하는 이유는 ne ~ guère/plus의 부정은 그 기저에 필연적으로 긍정의 의미 값을 전제함으로써, 완전한 정도의 부정의 의미 값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6) b. Elle <u>n</u>'a <u>guère</u> chang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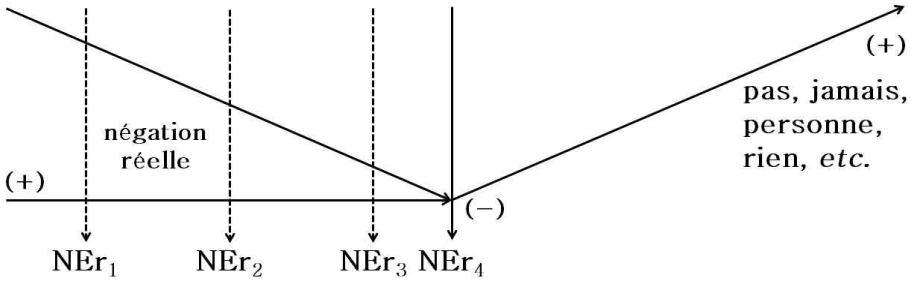
c. Il <u>n</u>'y a <u>plus</u> de place dans la salle.

먼저, 예문 (56b)에서 ne ~ guère는 '그녀는 별로 변하지 않았음'이라는 부정의 의미 값과 함께 '그녀는 아주 조금 변했음("Elle a <u>un petit peu</u> changé")'의 긍정의 의미 값도 나타낸다. 다음, 예문 (56c)에서 ne ~ plus도 '교실에 더 이상 자리가 없음'이라는 부정의 의미 값과 함께 '과거의 교실에는 자리가 있었음("Il y <u>avait</u> des places dans la salle")'의 긍정의 의미 값을 동시에 나타낸다.

‘배제적 부정’의 NEr_1이 NE의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긍정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에서 포착됨으로써 부정의 의미 값보다 긍정의 의미 값을 더 크게 나타냈다면, ‘불완전 부정’의 NEr_3은 부정의 영역과 가까운 시점에서 포착된 것이다. 이로써 NEr_3은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 값으로서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긍정의 의미 값보다는 부정의 의미 값을 내세운다.

4.3.2.4. 완전 부정

‘완전 부정’의 NEr_4는 NE의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정의 극에 완전히 도달했을 때인 말기에 포착된 결과이다. 이는 절대적 부정의 보조사 pas, point, aucunement, nullement과 상대적 부정의 보조사 aucun(e), jamais, nul(le)/nulle part, personne, rien 등과 함께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 ne에 해당된다.



[그림 17] 완전 부정 NEr_4의 포착

위의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 부정’의 NEr_4의 포착이 이루어질 때, NE의 부정화 운동이 표상하는 특수화 장력은 보조사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이 이끄는 일반화 장력을 통해 긍정의 방향으

로 전환된다. 이때 '불완전 부정'의 NEr_3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NEr_4에 내재된 부정의 의미 값은 일반화 장력이 함의하는 부정의 긍정화 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그러나 '불완전 부정'의 NEr_3과는 달리, '완전 부정'의 NEr_4는 조금의 긍정의 의미 값도 없이 오로지 부정의 의미 값만을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완전(complète)'하다고 칭한다. NE와 결합하여 '완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보조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pas와 jamais, personne, rien의 경우를 살펴보자.

(56) d. On n'a pas le temps de s'ennuyer.
e. Je ne suis jamais en retard.
f. Personne ne le croit.
g. Rien ne se pa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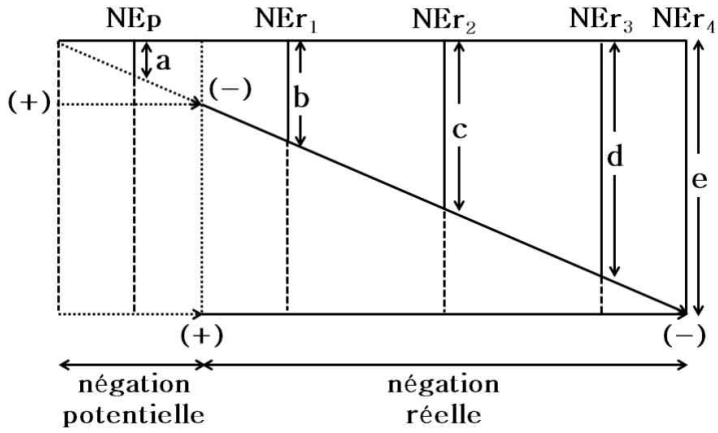
위의 예문 (56d)~(56g)에서 ne ~ pas/jamais/personne/rien은 각각 '지루할 시간이 없음', '단 한 번도 늦지 않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과 같이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완전 부정'의 NEr_4는 전체 의미 값이 1이라고 할 때 완전한 1의 크기로 부정의 의미 값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Moignet(1981:205-206)는 NE가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 쓰여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경우인 '부정의 ne'를 부정소 ne ~ pas에서의 NE보다 NE의 부정화 운동이 더 앞선 시점에 포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는 '부정의 ne'로 표현되는 주관적인 부정과 부정소 ne ~ pas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부정이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정의 ne'의 부정과 부정소 ne ~ pas의 부정이 비록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더라도, 2.2.1.2.에서 살펴본 '부정의 ne'의 임의적 용법에 있어서는 이 두 표현이 상호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부정의 ne'와 부정소 ne ~ pas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두 표현에서의 NE는 NE의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정의 극에 완전히 도달한 말기 지점에서 포착된 결과로서 공통적으로 '완전 부정'의 NEr_4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의 부정화 운동이 실제세계의 차원에서 부정의 극에서 포착된 상태로 그친다면 부정 부사 ne가 '부정의 ne'로서 독립적으로 쓰여 단순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며, 포착된 이후에 pas, jamais, personne, rien 등의 보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ne ~ pas/jamais/personne/rien 등으로 쓰였다면, 보조사가 이끄는 일반화 장력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력해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정소 ne ~ pas가 '부정의 ne'보다 객관적인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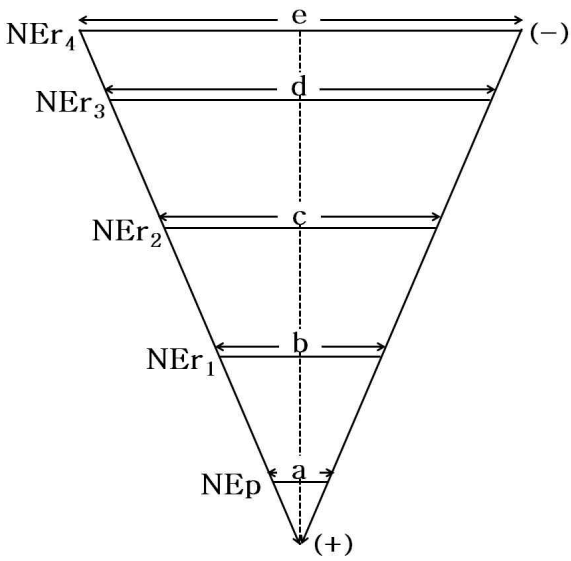
4.3.3. NE의 내적 의미차감

우리는 앞에서 프랑스어 발화에서 NE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로서 '잠재적 부정'(NEp)과 함께 '실제적 부정'(NEr)에서 파생된 '배제적 부정'(NEr_1), '상관적 부정'(NEr_2), '불완전 부정'(NEr_3), '완전 부정'(NEr_4)을 제시했다. 이 다섯 가지의 의미효과는 NE의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NEp \rightarrow NEr_1 \rightarrow NEr_2 \rightarrow NEr_3 \rightarrow NEr_4$'의 순서로 각각 잠재세계의 차원과 실제세계의 차원의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시점에서 포착된 결과이다. 이는 정신역학론의 '내적 의미차감(subduction interne)' 개념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8]을 살펴보자.



[그림 18]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내적 의미차감 I

위의 [그림 18]에서 NE의 부정화 운동은 잠재세계의 차원에서 '잠재적 부정'의 NEp를 발생시키며, 실제세계의 차원에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각각 '배제적 부정'의 NEr_1, '상관적 부정'의 NEr_2, '불완전 부정'의 NEr_3, '완전 부정'의 NEr_4를 발생시킨다. 이때 실제적 부정 중 '완전 부정'의 NEr_4가 완전한 부정의 의미 값을 지닌다면, '불완전 부정'의 NEr_3과 '상관적 부정'의 NEr_2, '배제적 부정'의 NEr_1,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세계의 차원의 '잠재적 부정' NEp는 본래 완전히 차 있었던 부정의 의미가 조금씩 줄어든 정도의 의미 값을 갖는다. 위의 [그림 18]에서 NEp와 NEr_1, NEr_2, NEr_3, NEr_4에 해당하는 세로축에서 실선 부분은 각각의 NE가 실제 발화에서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 값을 가리키며, 이때 NEp의 의미 값 a에서 출발하여 NEr_1의 의미 값 b, NEr_2의 의미 값 c, NEr_3의 의미 값 d, NEr_4의 의미 값 e로 갈수록 실선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NE가 지니는 다섯 가지 부정의 의미 값을 비교하면, '$a < b < c < d < e$'의 부등식이 성립된다. 이를 정신역학론의 전통적인 '의미차감' 도식으로 바꾸어 그리면 다음의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NE의 정신역학적·논리의미적 내적 의미차감 Ⅱ

이렇게 NE는 그 부정화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포착되는지에 따라 실제 발화에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의 동일한 기호인 NE의 내부에서 본래의 완전했던 부정의 의미 값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내적 의미차감 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프랑스어 형태 NE가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 ne'와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지 않는 '허사 ne'로 두 가지 모순적인 용법을 지니는 현상은, 전통 문법에서부터 현대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신역학론의 틀에서 NE의 다양한 쓰임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Moignet(1981)와 논리의미론의 관점에서 허사 ne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를 정신역학적 모델로 통합시키고자 했던 Martin(1984)에 의거하여, NE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했다.

우리는 서론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2장에서는 기존의 문법 연구들을 바탕으로 NE의 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에 NE의 근원적 의미를 분석했던 연구로서 Damourette & Pichon(1930)과 Muller(1991)의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확인했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한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이론을 바탕으로 NE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NE를 각각 정신역학적 관점과 논리의미적 관점에서 고찰한 Moignet(1981)와 Martin(1984)의 분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형태 NE가 랑그 차원에서 나타내는 '잠재의미'와 담화 차원에서 나타내는 '실현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NE의 정신체계를 수립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는 Moignet(1981)가 제시한 NE의 메커니즘을 더욱 세밀화했으며, 허사 ne의 용법에 국한된 Martin (1984)의 논리의미적 가설을 NE의 용법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먼저,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잠재세계에서 부정되는 경우, NE는 명제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부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뉘앙스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사 ne'의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다음으로, NE를 포함하는 명제 p가 실제세계에서 부정되는 경우, NE는 실질적으로 명제를 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부사 ne'의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부정'의 실현의미의 경우, 부정 부사 ne가 어떤 부정 요소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의미효과를 '배제적 부정'(NEr_1)과 '상관적 부정'(NEr_2), '불완전 부정'(NEr_3), '완전 부정'(NEr_4)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배제적 부정'은 부정 부사 ne가 접속사 que와 결합함으로써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관적 부정'은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형태 NE가 혼자 출현하여 전체 문장의 상관관계 구조에 내포된 부정의 의미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함을 보였다. 이어서 '불완전 부정'은 부정 부사 ne가 보조사 guère, plus와 결합하여 불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완전 부정'은 부정 부사 ne가 guère와 plus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사 pas, jamais, personne, rien 등과 결합하여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역학론의 의미차감 개념에 의거하여, NE에는 허사 ne로 발현되는 '잠재적 부정'에서부터 ne ~ que의 '배제적 부정', 불평등 비교구문의 종속절에서 혼자 쓰인 형태 NE의 '상관적 부정', ne ~ guère/plus 의 '불완전 부정', ne ~ pas/jamais/personne/rien 등의 '완전 부정'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친 내적 의미차감 작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즉,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효과들은 NE의 부정화 운동이 잠재세계의 차원과 실제세계의 차원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서 포착된 결과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어 형태 NE의 복잡한 쓰임을 정신역학론과 논리의미론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부정 부사 ne의 용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현되는 구체적인 의미효과와 부정의 의미 값의

크기에 따라 세부적인 하위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Moignet(1981)가 제안한 [그림 5]의 NE의 부정화 운동 도식을 [그림 11]과 같이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여 재구성함으로써, NE의 정신체계를 수립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NE의 정신체계가 일반언어학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NE의 문법 교육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들의 NE 사용 코퍼스 분석과 같은 보다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분명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프랑스어 NE의 복잡한 용법을 '정신체계'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기호가 단순히 서로 구별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는 다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신역학론이 효과적인 분석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소정 (2015). 정신역학론의 의미차감(Subduction)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동열 (2001). 불어와 한국어의 명사 한정: 관사 UN, LE와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연구, 『프랑스어문교육』 11, pp. 121-142.

박동열 (2008). '허사' NE에 관한 연구: 역사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NE의 정신역학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28, pp. 217-240.

박옥숙 (1999). 언어와 Univers de Croyance - 로베르 마르땡의 언어이론 2, 『불어불문학연구』 38(2), pp. 469-493.

서덕렬 (1996). 불어의 부정에 관한 통시적 연구: ne와 pas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32(2), pp. 691-717.

손병홍 (2004). 『가능세계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소피아.

장승일 (2016). 『참은 참이라고 말한 것이다: 텍스트의 정합성을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Aristoteles (2008).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 서울, 이제이북스.

Arrivé, M. (1996). Ce que Lacan retient de Damourette et Pichon: l'exemple de la négation, *Langages* 124, pp. 113-124.

Ashby, W. J. (1981). The loss of the negative particle ne in French: A syntactic change in progress, *Language* 57(3). pp. 674-687.

Blanché. R. (1968). *Introduction à la logique contemporaine,* Paris: Colin.

Boone, A. & Joly, A. (2003). *Dictionnaire terminologique de la systématique du langage*, Paris: L'Harmattan.

Brunot, F. & Bruneau, C. (1969). *Précis de grammia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Masson et Cie.

Charaudeau, P. (1992).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Paris: Hachette.

Damourette, J. & Pichon, E. (1930). *Des mots à la pensée: Essai de*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Tome I. 1911-1927, Paris: Editions d'Artrey.

Forest, R. (1993). *Négations: essai de syntaxe et de typologie linguistique*, Paris: Libr. C. Klincksieck.

Fournier, N. (2004). Approches théoriques, valeur en langue et emplois du *ne* dit 'explétif' en français classique, *Langue française* 143, pp. 48-68.

Glättli, H. (1960). A propos du *ne* explétif après *sans que*, *Vox Romanica* 19, pp. 300-318.

Goosse, A. & Grevisse, M. (2016). *Le Bon Usage*. 16e édition, Paris: De Boeck.

Grevisse, M. (2006). *Le petit Grevisse. Grammaire française*. 31e édition, Paris: De Boeck.

Guillaume, G.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Paris-Québec: Klincksieck-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Guillaume, G. (1982a). *Leçons de linguistique 1945-46, série C, Grammaire particulière du français et grammaire générale I*, Québec-Lil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Guillaume, G. (1982b). *Leçons de linguistique 1945-46, série C, Grammaire particulière du français et grammaire générale IV*, Québec-Lil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Guillaume, G. (1984).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Québec: Nizet-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Guillaume, G. (1987). *Leçons de linguistique 1947-1948, Série C, Grammaire particulière du français et grammaire générale III*, Québec-Lill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Guillaume, G. (2005). *Leçons de linguistique 1941-42, série B, Théorie du mot et typologie linguistique : limitation et construction du mot*

à travvers les langues, Québec-Lil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Hadermann, P. & Pierrard, M. (2014). La construction corrélative et les marqueurs en *qu-*, *Langue française* 182, pp. 91-106.

Jin, Y. & Koenig, J.-P. (2017). A cross linguistic study of expletive negation, *Colloque de syntaxe et sémantique à Paris*.

Joly, A. & O'Kelly D. (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aris: Nathan.

Larrivée, P. (1995). Pas explétif, *Revue Romane* 31(1), pp. 19-28.

Lowe, R. (2007). *Introduction à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Lyons, J. (1978). *Eléments de sémantique,* Paris: Libr. Larousse.

Martin, R. (1984). Pour une approche sémantico-logique du *ne* dit "explétif", *Revue de linguistique romane* 48, pp. 99-121.

Martin, R. (1988). La négation dans un modèle sémantique multivalué, *Travaux du Centre de Recherches Sémiologiques* 57, pp. 1-15.

Martin, R. (1992). *Pour une logique du sens*. 2e éd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Miestamo, M. (2017). Negation, Aikhenvald, A. Y. & Dixon, R. M. W.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05-439.

Moignet, G. (1981).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Éditions Klincksieck.

Molina, J. V. (2006). La négation des comparatives, *Langages* 162, pp. 46-60.

Monneret, P. (2003). *Notions de neurolinguistique théorique*, Dijon: Editions Universitaires de Dijon.

Muller, C. (1978). La négation explétive dans les constructions complétives, *Langue française* 39, pp. 76-103.

Muller, C. (1991). *La négation en français: syntaxe, sémantique et éléments de comparaison avec les autres langues romanes,* Genève: Librairie Droz S.A..

Muller, C. (2013). Corrélation et complémentation dans les comparatives du français dans une perspective typologique, Inkova, O. & Hadermann, P. (Ed.), *La corrélation: aspects syntaxiques et sémantiques*, Genève: Droz, pp. 19-40.

Riegel, M., Pellat, J.-C. & Rioul, R. (2016).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Ritz, M.-E. (1993). La sémantique de la négation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38, pp. 67-78.

Saussure, F. (198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 Tullio de Mauro, Paris: Payot.

Tesnière, L. (1982).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Éditions Klincksieck.

Wartburg, W. von. & Zumthor, P. (1973). *Précis de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3e édition, Berne: Éditions A. Francke.

Wilmet, M. (1997). *Grammaire critique du français,* Paris: Duculot.

Résumé

Étude sur le mécanisme de la forme *NE* en français dans la perspective psychomécanique

Chaeyoung LEE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epuis la grammaire traditionnelle jusqu'à la linguistique contemporaine, il existe toujours de vifs débats relatifs au double emploi de la forme *NE* en français qui serait complètement opposé : l'un sous l'adverbe négatif *ne* qui exprime la négation ; l'autre, le *ne* explétif, qui ne l'exprime pas. Ce mémoire a pour but d'établir avec cohérence un mécanisme de la forme *NE* d'après Moignet (1991) qui a tenté d'expliquer ses différents emplois via la perspective psychomécanique et Martin (1984) qui a essayé de trouver une solution au problème de la contradiction sémantique du *ne* explétif à travers l'outil logicosémantique.

Pour atteindre nos objectifs, nous avons d'abord soigneusement examiné les deux emplois de *NE*, à savoir l'adverbe négatif *ne* et le *ne* explétif. Ensuite, nous nous sommes attardée sur les deux principales recherches existantes sur *NE* en français : l'analyse psycholinguistique de Damourette & Pichon (1930) et l'analyse morphosyntaxique de Muller (1991). Après une réflexion sur leurs limites, nous avons pu affermir notre position en tant que proposition d'un nouveau mécanisme capable de justifier la valeur fondamentale de *NE* en appliquant les outils psycho-mécanique et logicosémantique.

Dans ce contexte, avant de construire un psychosystème de *NE*, nous avons d'abord consulté la théorie générale de la psychomécanique autour de ses quelques concepts importants, "langue", "discours", "signifié de

puissance", "signifié d'effet", "tenseur binaire radical" et "subduction". De plus, afin de pouvoir élargir la pertinence de l'argument de Martin (1984) sur le *ne* explétif au mécanisme entier de *NE*, nous avons aussi examiné les concepts logicosémantiques d'"univers de croyance" et de "monde possible".

S'appuyant sur les bases de la psychomécanique et de la logico-sémantique, nous avons tenté de clarifier la nature fondamentale de *NE* en supposant que sa signification de négation puisse se dérouler dans deux mondes possibles distincts : le "monde potentiel" et le "monde réel". La forme *NE* est dotée d'une « *négation dans le monde potentiel* » et d'une « *négation dans le monde réel* » pour ses signifiés de puissance dans le plan de la langue ; chaque forme se développe en signifié d'effet de « *négation potentielle* » et de « *négation réelle* » sur le plan du discours.

Dans le premier cas, la proposition *p* contenant *NE* est niée dans un monde potentiel(m) de sorte que *NE* n'exprime pas la valeur négative en intégrant une certaine nuance relative à la négation dans l'énoncé. Cela correspond à la forme *NE* dans les complétives du verbe/adjectif/nom de crainte, de précaution, d'interdiction et de négation/doute, les constructions impersonnelles *Il tarde à ~ que*, *Il ne tient pas à ~ que* et *Il s'en faut de peu que* et les subordonnées circonstancielles *avant que*, *à moins que* et *sans que*, c'est-à-dire à *ne* explétif. A l'inverse, dans le dernier cas, *p* est niée dans le monde réel(m_0) de sorte que *NE* fonctionne effectivement en tant qu'opérateur de négation. Cela correspond à la forme *NE* qui signifie divers types de négation en tant qu'adverbe négatif *ne*.

En dernier lieu, par rapport au signifié d'effet de « *négation réelle* », nous avons distingué 4 divers effets de sens qui peuvent se révéler dans un contexte précis de l'énoncé selon la visée du discours du sujet individuel parlant : « *négation exceptive* », « *négation corrélative* », « *négation incomplète* » et « *négation complète* ». Dans le cas de la négation exceptive, *NE* s'associe en tant qu'adverbe négatif avec la conjonction *que* pour exprimer l'idée de restriction. Le cas de la négation corrélative est celui où *NE* apparaît seul dans la subordonnée de la

comparative d'inégalité. Alors que la forme *NE* dans cette construction est aisément considérée comme explétif, nous avons démontré non seulement qu'elle a un caractère bien différent des autres constructions du *ne* explétif dans l'aspect syntaxique mais aussi qu'elle exprime en effet une négation implicite dans la corrélation de la comparative d'inégalité. Enfin, quant à la négation incomplète, il s'agit de l'adverbe négatif *ne* associé avec l'auxiliaire *guère* et *plus* pour exprimer l'idée de négation incomplète en laissant nécessairement le présupposé positif, et quant à la négation complète, il s'agit de l'adverbe négatif *ne* associé avec les autres auxiliaires de négation comme *pas*, *jamais*, *personne*, *rien*, *etc.* pour exprimer l'idée de négation complète.

Au final, nos propos sur chaque effet de sens est le résultat d'une saisie dans un point particulier sur le mouvement de négativation de *NE* qui s'écoule du positif (+) au négatif (-). Par conséquence, la forme *NE* subit une opération de subduction interne qui part de la négation complète qui est complètement chargée de la valeur négative et arrive à la négation potentielle qui est vide dans le monde réel mais qui possède malgré tout un minimum de négativité dans le monde potentiel.

Nous espérons que cette étude, où nous avons subdivisé les différents emplois de la forme *NE* selon un aspect concret de la négation exprimée et le degré de la valeur négative réalisée, permette de mieux appréhender son comportement hétérogène extérieur dans son mécanisme homogène intérieur. Par ailleurs, cette étude aurait une signification considérable sous le prisme de la psychomécanique qui se montre être un outil efficace et pertinent pour expliquer le phénomène polysémique qu'un même signe peut engendrer dans différentes valeurs sémantiques comme la forme *NE* en français.

Mots-clés : forme *NE*, psychomécanique, psychosystème, signifié de puissance, signifié d'effet, négation potentielle, négation réelle, subduction interne

N° étudiant : 2017-28812